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金 容 載 教授指導
碩士學位 請求論文

중·고교 漢文科 教育에서의
人性教育 덕목 개발과 교수·학습법 연구
- 2015 개정 교육과정 중심으로 -

2018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漢文學科

金 智 映

중·고교 漢文科 教育에서의
人性教育 덕목 개발과 교수·학습법 연구
- 2015 개정 교육과정 중심으로 -

金 容 載 教授 指導

이 논문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제출함

2018 年 5 月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漢文學科

金 智 映


認 准 書

金智映의 碩士學位 論文으로 認准함

2018年 5月

審査委員長 신 영 주 

審査委員 金 呂 珠 

審査委員 김 용 재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목차

□ 논문개요

I. 서론	0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01
2. 선행연구 검토	06
3.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11
II. ‘人性’과 ‘人性教育’에 대한 이론적 배경	13
1. 인성교육을 위한 정부기관과 ‘교육학’ 방면에서의 문제의식	13
2. 중등교육 ‘道徳科’에서의 ‘인성’ 개념과 교육적 가치	18
3. 중등교육 ‘漢文科’에서의 교육과정 변천에 나타난 ‘인성교육’	21
III. 『한문교과서』에서의 인성교육 분석과 인성덕목 창출	31
1. 인성덕목에 관한 영역별 및 빈도수 분석	32
2. 장르별 인성교육에 관한 글감의 위계와 층차	36
3. 본문 글감과 학습활동 간의 정합성 및 교육활동의 한계	40
4. 漢文科에서의 인성교육을 위한 새로운 ‘인성덕목’ 창출	50
IV. 漢文科에서의 인성교육을 위한 교수법 제언	58
1. ‘字’의 음·훈 형태소를 활용한 ‘평등’ 덕목 및 교수법	58
2. 漢詩를 활용한 ‘修己’, ‘家族愛’, ‘自然觀’, ‘人間觀’ 덕목 및 교수법	63
3. 時宜性和 時中之道를 갖춘 인성교육	66
4. ‘漢文’과 他교과의 융합수업을 통한 인성교육 提言	70
V. 결론	81
□ 참고문헌	87
□ Abstract	91

〈표〉 목차

〈표01〉 : 교육부에 정책에서의 인성교육의 정의와 핵심 덕목	14
〈표02〉 : 교육학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성’의 개념 정의	15
〈표03〉 : 교육학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성’ 덕목(10개)	17
〈표04〉 : 〈2009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19
〈표05〉 :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20
〈표06〉 : 〈2009 개정 漢文科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	22
〈표07〉 :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목표	22
〈표08〉 :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교과의 성격	23
〈표09〉 :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인성역량에 대한 설명	23
〈표10〉 :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목표	24
〈표11〉 :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25
〈표12〉 : 〈2015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25
〈표13〉 :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학습내용 설명과 성취기준	26
〈표14〉 :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학습내용 설명과 성취기준, 학습요소	27
〈표15〉 :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	28
〈표16〉 :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	28
〈표17〉 :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한문교과서』 목록	31
〈표18〉 :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목록	32
〈표19〉 :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문 II 교과서』 목록	32
〈표20〉 : 象形字를 통한 인성교육 예시	38
〈표21〉 : 새롭게 제시하는 漢文科 인성교육 내용체계	51
〈표22〉 : 중·고등학교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800字에서 성별이 드러난 한자	59
〈표23〉 : ‘字’를 활용한 수업 지도안	61
〈표24〉 :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내용체계	72
〈표25〉 : 〈2015 개정 교육과정 사회과 교육과정: 역사 과목〉의 성격	74

논문개요

이 연구는 한문교과시간을 활용하여 효율적이며 가치 있는 인성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현재의 〈2015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쓰인 한문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인성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새로운 인성덕목을 제언하고 이에 따른 교수-학습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핵심 역량으로 ‘인성’이 거론되면서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야기되었고 학교교육에서부터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인성교육법〉 등을 앞세워 교육과정을 개정하였고, 凡교과적으로 인성교육 요소를 배치하고 교실수업에서 인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나 그동안의 한문교과 인성교육은 내용체계가 구체적이지 못했으며, 교사와 학습자들 모두에게 외면 받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한문교과에서의 인성교육과 그 교수법을 고찰해 볼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 연구의 II장에서는 교육부의 정책과 교육학계에서의 논의, 도덕과 교육과정, 한문과 교육과정을 살펴 인성교육의 다양한 정의를 찾아내고, 현재의 인성교육이 담고 있는 인성덕목과 그 내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漢文科에서의 인성교육 내용은 점차 강조 되고 있었지만 ①한문과 교육과정은 인성교육 내용체계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②시대성을 담지 못하고 있으며, ③비판적인 학습을 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III장에서는 본격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집필된 교과서를 살펴보았다. 첫째, 인성덕목에 관한 영역별 및 빈도수를 분석하였다. 둘째, 글감을 학습 장르별로 구별하였다. 셋째, 본문 글감과 학습활동이 제대로 연계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학습활동이 가지는 한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문교과서의 인성덕목은 당위적이며, 시의성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고, 학습활동이 인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학습목표를 충분히 실현시켜주지 못하거나, 비판적 감상을 제공하는 학습활동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도출해 내었다. 이에 넷째로, 漢文科가 다룰 수 있는 새로운 인성덕목을 창출해내었다.

IV장에서는 漢文科에서의 인성교육을 위한 교수법을 개발하였다. 첫째, ‘字’의 음·훈·형태소를 활용하여 ‘평등’덕목 교수법을 개발하였다. 둘째, 한시 감상을 통한 ‘자기수양’, ‘가족애’, ‘자연관-인간관’ 덕목의 인성교육 보충 자료를 개발하였다. 셋째, 시의성을 갖춘 인성교육을 하기 위한 문장의 비판적 감상 방법을 제안하였다. 넷째, 他교과와의 융합을 시도하였다. 체육, 역사, 고전과 윤리 과목과의 융합을 통해 새롭고, 서로의 단점은 보충하며 장점은 극대화하는 교수법을 제안하였다.

한문고전은 수천 년간 선인들이 쌓아온 지혜와 사상, 감정이 집약되어 있는 텍스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문고전을 바탕으로 하는 漢文科 수업은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중요 교과가 되었다. 그러나 한문교과에서의 인성교육은 학습자들의 인성을 함양시켜주기에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본고에서 새롭게 창출한 인성덕목과 교수-학습법을 통해 漢文科의 인성교육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키워주며, 지금 시대가 원하는, 환영받는 인성교육으로 발전하기를 소망한다.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시대에 따라, 필요로 하는 인재는 달라진다. 2016년을 시작하며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향후 세계가 직면할 화두로 ‘4차 산업혁명’을 제시하였다. 그 이후 4차 산업혁명이 유행어처럼 회자되었고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더욱이 2016년 3월 알파고(AlphaGo)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은 4차 산업혁명의 한 단면을 보여 주는 사건으로 다가왔다. 인공지능과 로봇,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 등을 통한 새로운 융합과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건이었다.¹⁾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코앞에 앞두고 하루하루가 변화하고 있는 지금, 사회에서 가장 요구하는 인재는 과연 어떠한 인재이며 어떤 人間像일까? ‘미래에 가장 가까운 기업’으로 뽑히는 구글은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²⁾에서 다섯 가지 인재상을 발표했다. 다섯 가지는 ①학습능력(General cognitive ability), ②새로운 리더십(Emergent Leadership), ③지적 겸손(Intellectual humility), ④책임감(Ownership), ⑤전문지식(Expertise)이다. 구글은 “다섯 가지 기준 중 전문지식은 가장 덜 중요하다.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지적 겸손’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적겸손’을 강조했다. 왜냐하면 21세기는 이미 지식정보가 공유화된 사회로서, 사람은 누구나 어떠한 지식이 필요하면 인터넷과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 지식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지식에 다가갈 수 있는 쉬운 방법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전문지식 하나만을 갖춘 인재 보다는 다른 인재가 필요해진 것이다.

미래 사회는 점점 복잡해져감에 따라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함께 일을 해야만 하는데 만일 어떤 똑똑한 사람이 ‘지적 겸손’을 갖추지 못한다면, 실패할 경우 그 책임을 다른 팀원이나 상사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진다. 이러한 일이 자주 생긴다면 그

1) 김대호, 『4차 산업혁명』, 커뮤니케이션 북스, 2016.

2) Thomas L. Friedman, 「How to Get a Job at Google」, The New York Times, 2014.02.22.
(https://www.nytimes.com/2014/02/23/opinion/sunday/friedman-how-to-get-a-job-at-google.html?_r=0)

팀은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듯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다른 사람과 협업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하고 상대를 존중·배려할 줄 알아야만 한다. 즉 ‘바른 인성’을 갖추는 것이 지금의 사회, 나아가 4차 혁명시대엔 필수 능력이다.³⁾

미래 사회의 대비 방법으로 인성교육이 언급되자 사회에서도 인성교육에 대한 요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교육부는 청소년의 인성함양에 대한 중요성을 자각하고 인성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수립하였는데, 〈창의·인성교육기본방안(2009년)〉,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2011)〉, 〈폭력·따돌림 없는 학교 만들기(201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2010~2014) 기본계획(2010)〉,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2012)〉 등이 그것이다.⁴⁾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은 학생들의 인성 함양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2 인성교육 실태조사〉⁵⁾에 따르면 국민 중 51.1%가 학생들의 정직성이 낮다고 평가하였으며, 교사의 80.3%가 학생들의 더불어 사는 능력(협력, 참여 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실효성 있는 인성교육을 진행할 목적으로 『인성교육진흥법』⁶⁾이 제정되었다.⁷⁾

인성교육을 강조하려는 교육부의 의도대로 교육과정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슬로건은 ‘창의·인성 교육’⁸⁾으로 설정되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은 새 교육과정이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중점을 둔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인성교육의 한 축을 담당해낼 수 있는 일환으로 ‘한문교육’이 추구해야할 교육과정과 교수방법에 대하여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3) 윤석만, 「4차 혁명시대, 인성이 최고 실력이다」, 경향신문, 2017.11.10.등록. (<http://news.joins.com/article/22105061>)

4) 조지선, 「양명철학에 있어 인성교육의 함의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에서 재인용 (현주 외, 「초·중등 학생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I):인성교육 진단 및 발전과제 탐색」 연구보고 RR2013-01, 한국교육개발원, 2013, p.39-49 참조.)

5) 교육과학기술부, 「2012 인성교육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2. 9.3.

6) 인성교육진흥법은 2014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5년 1월 20일 공포됨에 따라 6개월 후인 2015년 7월 21일 시행되었다.

7) 조지선, 위의 논문 p.1-2 참조.

8) 교육부에서는 창의·인성 교육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동시에 더불어 살 줄 아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으로 정의하였다. 창의·인성 교육 기본방향(2009), 교육과학기술부, p.7 참조.

‘漢文古典’은 수천 년간 先人들이 쌓아온 지혜와 사상, 감정이 집약되어있는 寶庫이다. 한문교과는 한문 텍스트를 해석하고 감상하는 과정을 통하여 선인들의 지혜와 비판적 사고, 그리고 그들의 인성과 풍자적 이미지 등을 느껴볼 수 있는 교과이다. 이러한 교과목 특성상 ‘한문’은 전통교육에 근간을 둔 현대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의 방향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부응하여 『2015 개정 漢文科 교육과정』에서도 ‘人性’ 역량을 한문교과의 핵심역량 가운데 하나로 설정해 놓으면서, 한문 과목은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중요 교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⁹⁾

그렇다면 ‘한문’ 교과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인성’ 능력을 제대로 키워주고 있는지 반성적 고찰이 요구된다. 학교 현장에서 한문 교과의 입지는 매우 열악하다. 주지하시다시피, 수업 시수도 매우 적을뿐더러, 한문 교사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관계로 국어나 중국어 교사가 한문을 가르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것은 한문교과에서

9) 漢文科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여러 교과 중 유일하게 ‘인성역량’을 교과 역량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성찰·개발 역량 -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 문화 향유 역량 - 의사소통 역량 - 공동체·대인 관계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해결 능력 - 추론 능력 - 의사소통 능력 - 창의·융합 능력 - 정보 처리 능력 - 태도 및 실천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 의사소통역량 - 자기관리 역량 - 공동체 역량 - 지식정보처리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적 사고력 - 비판적 사고력 - 문제 해결력 및 의사 결정력 -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 정보 활용 능력
역사	도덕	과학	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 사실 이해 - 역사 자료 분석과 해석 - 역사 정보 활용 및 의사소통 - 역사적 판단력과 문제해결 능력 - 정체성과 상호 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존중 및 관리능력 - 도덕적 사고 능력 - 도덕적 대인 관계 능력 - 도덕적 정서 능력 - 도덕적 공동체 의식 - 윤리적 성찰 및 실천 성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적 사고력 - 과학적 탐구 능력 - 과학적 문제해결력 -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 - 과학적 참여와 평생 학습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관리 능력 - 신체 수련 능력 - 경기 수행 능력 - 신체 표현 능력
음악	미술	기술·가정(실과)	한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관리 역량 - 음악정보처리 역량 - 음악적 창의 융합 사고 역량 - 음악적 감상 역량 - 음악적 소통 역량 - 문화적 공동체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적 감수성 - 시각적 소통 능력 - 창의·융합 능력 - 미술 문화 이해 능력 - 자기 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천적 문제해결 능력 - 생활 자립 능력 - 관계 형성 능력 - 기술적 문제해결 능력 - 기술시스템설계 능력 - 기술활용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소통 능력 - 정보처리 능력 - 창의적 사고 능력 - 인성역량 - 심미적 감상

가르칠 수 있는 인성교육의 정체성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또 하나의 傍證인 셈이다. 학생들이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정규 교과시간에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내에서의 인성교육은 이른바 ‘문제야’를 선도하는데 필요한 교육으로 쓰이거나, 보여주기 식 展示教育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흔하다. 학생들도 인성교육은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며, 이미 본인들이 알고 있는 뻔한 이야기만을 듣는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등, 학습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그 가운데에서도 ‘한문’ 교과에서 가르치는 인성교육의 내용들은 ‘옛날 것’에 기초하고 있어 지금 시대와는 동떨어진 가치관을 내포하고 있다거나, 혹은 현대사회에 적용하기에 적절치 못한 가치관 - 또는 세계관 - 도 포함되어 있다. 한문 교과가 어렵고 지루하며 전통의 유학사상을 전수하는 교과라는 선입견도 한문교과에서의 인성교육이 부정적으로 인지되는 요소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실제로 한문교과서에서 인성교육 요소로 제시하는 핵심덕목은 仁義禮智로 대표되는 ‘儒學思想’, 좀 더 상세한 표현으로 치환하면 자기수양과 같은 省察과 箴言이 대부분이다. 한문교과서가 다루는 내용적 요소의 자체적인 문제점도 있다. 대부분의 한문교과서는 한문 문장을 해석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세세한 인성교육 부분은 강조되어 있지 않다. 인성에 관한 학습목표가 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충분한 ‘활동’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茶飯事이다. 또한 인성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보충자료라 기술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인성’과는 전혀 관련 없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교과서도 상당하다.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학교 차원에서는 인성교육을 위한 인성교육 수업시간을 따로 모색하게 되고, 교사는 교과 외에 과중한 업무를 떠맡게 되어 그 부담감은 실로 크다고 하겠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교육을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며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사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¹⁰⁾ 그리고 인성교육의 덕목으로 ①禮, ②孝, ③정직, ④책임, ⑤존중, ⑥배려, ⑦소통, ⑧협동 등의 8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漢文 교과는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인성교육 내용을 제대로 가르칠

10) 「인성교육진흥법」, 법률(제13004호), 2015년 1월 20일 시행.

수 있도록 이미 텍스트가 확보된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漢文科는 漢文科만의 특성을 살려 그 정체성을 심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동안 발표되었던 한문교과서는 어떠한가?

1972년 ‘漢文’이 독립 교과로 인정된 이후, 교육과정이 편성되고 이에 따라 교육내용을 담보하는 ‘교과서’가 수차례 제작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교과서內 수록된 한문 문장, 소위 ‘글감’에 대한 질적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해서는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수차례 교육과정 개편 때마다 한문 교과서의 내용은 다양한 측면에서 변모와 발전을 거듭해왔지만, 그간의 교과서 내용은 거의 동일시되어 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¹¹⁾ 특히 ‘인성교육’ 영역에 있어서는 양적팽창만 있을 뿐, 기존의 수록된 글감과 학습목표가 거의 대동소이할 정도로 답습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¹²⁾ 이 점에 대해서는 냉정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이에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본 논고에서 세 가지의 문제제기로부터 연구를 시작하기로 한다.

첫째, 현재 漢文科에서 시행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지난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해 볼 때, ‘인성교육’ 자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어떠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자는 것이다. 여기에 교육부와 그간 인성교육의 중추 교과목이라 할 수 있던 ‘道德科’와의 비교를 포함하여 ‘漢文科’만의 인성교육 정체성을 찾아보자는 데에 무게중심을 부여한다.

둘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현재의 『중·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서는 ‘인성교육’을 위하여 어떠한 내용과 설명을 부연해놓았는지 穿鑿해 볼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는 한문교과서에서 인성교육이 가지는 영향력을 학습목표, 본문 내용, 활동학습, 보충자료 등 여러 층위로 나누어 분석할 것이다. 또한 漢文科에서 가르칠 수 인성덕목 가운데, 현대적 관점과 가치관에 부응할 수 있는 時宜性 있는 ‘인성덕목’들을 創出해보자는 데에 본고의 연구목적 설정한다. 기존의 한문교과서에서

11) 김용재, 「중고교 한문교육에서의 경서교육에 관한 발전적 제언」, 『한문고전연구』 제27집, 2013.12

12) 김용재, 「중고교 한문교육에서의 경서교육에 관한 발전적 제언」, 『한문고전연구』 제27집, 2013.12

다루었던 인성교육의 덕목은 진부하거나 또는 다소 고리타분하여 학습자로부터 외면 받은 바 있다. 이에 연구자는 과거 ‘있어왔던’ 인성교육 덕목으로부터 ‘있어야 할’ 인성교육 요소들을 한문고전에서 다양하게 창출해보고자 한다. 이렇게 새로운 인성교육 요소들이 제시되면, 한문교과로부터 떨어져 있던 학습자들이 인성교육의 필요성과 흥미를 갖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漢文科 교실수업에 적극성을 띄며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고는 위와 같은 인성덕목이 창출되면, 이제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인성교육이 될 수 있는지, 그 교수·학습방법의 新모델을 제시하도록 하겠다.¹³⁾ 지금의 ‘밀어 넣기 방식의 교육’이 아닌, ‘꺼내주어 체험하는 교육’을 통하여 미래지향이며 진취적인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새로운 교실수업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한문교과 내에서의 인성교육이 명과 실이 상부할 정도의 정체성과 발전성을 견지할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2. 선행연구 검토

그간 한문고전을 활용한 인성교육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있어왔다. 그러나 발표된 논문의 수가 적고 중·고등학생보다는 일반인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된 것이 많았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평소 진행되는 교과수업의 한 부분으로서의 인성교육이 아닌, 소위 ‘문제야’만을 대상으로 연구되었거나, 혹은 인성교육만을 위한 수업 사례를 소개하는 등, 단편적인 수업 소개에 그쳐 아쉬움이 많다. 그러나 몇 안 되는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한문고전이 인성교육에 상당히 효과적이었음을 확인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매우 고무적이었다.

첫째, 한문고전을 활용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의 사례이다. 본 연구

13) 김용재 외, 「한문학습 자전 편찬 어휘」에서 이미 밝혀놓았듯이, “중등교육 현장에서의 한문교육은 학습자의 수행능력을 제고하는 ‘배움’중심 수업과, 교사의 조력이나 참고서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유용한 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그 방향성과 가닥을 잡을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 동의하며, 본 논고 역시 한문교과서에서의 인성교육 체계에도 그 일관성과 방향성을 학습자 중심 쪽으로 밝혀보고자 한다.(김용재, 김우정 외, 「한문 학습용 사전 수록 어휘의 선정과 체제」, 『한문교육연구』, 2014)

는 중·고교 漢文科 교육에서의 인성교육 교수·학습 방법을 제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사례를 연구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둘째, 대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사례를 찾아보았다. 한문고전이 인성교육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기 위하여 범위를 넓혀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셋째, 타 교과에서는 교과내용과 인성교육을 어떻게 접목하여 수업하는지에 대한 논문이다. 타 교과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는다면 알차고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문고전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에 관한 논문은 다음과 같은 것을 참고 할 수 있다.

김은정의 「한문과를 적용한 인성교육 방안 연구」에서는 직접 개발한 인성교육 교재와 모형으로 실제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¹⁴⁾ 인성교육의 목적을 부적응학생을 위한 인성교육, 진로교육과 융합한 인성교육, 교과 간 융합 인성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및 자율동아리 활동, 학생자치 법정 활동으로 나누고 활동 방안을 제시하였다. 학생들에게 생활지도와 교과수업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하게하고 이를 통하여 한문고전을 통한 인성교육이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됨을 확인하였다. 한문고전을 활용한 인성교육 방안을 여러 가지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오예승은 「한문과 창의·인성 교수·학습 사례」에서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한문의 교과역량에서 창의·인성 요소를 살펴보고, 창의·인성 수업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6개의 수업 사례를 제시하였다.¹⁵⁾ 6개의 수업 사례는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반영하여 자화상과 자찬 만들기’, ‘자존에 관한 문장을 익히고 이를 삶에 적용하여 나의 소중함을 한문으로 표현하기’, ‘친구의 고민과 바람을 듣고 해 줄 덕담의 말을 한문으로 표현하기’, ‘경청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상황극을 통해 경청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토론을 통해 경청의 방법을 살펴보기’, ‘한자포스터 만들기’, ‘고사성어 동화책을 읽고 고사성어 독서 논술·토론하기’이다. 오예승은 직접 만든 창의·인성 교수법을 사용하여 경기도 내 중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하고 수업효과에

14) 김은정, 「한문과를 적용한 인성교육 방안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8.

15) 오예승, 「한문과 창의·인성 교수·학습 사례」, 『한문교육연구』 45집, 한국한문교육학회, 2015. p.80

대하여 정리했다. 현장 교사들에게 수업 개선에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참고할만한 논문이다.

김은경의 「한문과 인성」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사례」에서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수·학습 및 평가에 대한 교실 수업 구현 방법을 안내했다.¹⁶⁾ 교수·학습 방법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수업하고 수행평가 예시 문항, 평가 방안, 예시답안, 채점기준을 제시했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실재를 볼 수 있는 논문이다.

둘째, 한문고전을 활용하여 ‘대학생’이나 ‘일반인’에게 인성교육을 한 경우이다.

고재석은 「대학인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 동아시아 고전 『논어』를 통한 인성교육 모델 제언-」에서 논어를 기반으로 인성교육의 내용과 방법, 평가척도를 개발하고자하였다.¹⁷⁾ 논어의 핵심 사상인 仁을 인간다움의 이상으로 설정하고 인성교육의 내용으로 仁을 통해 내면의 본심을 확립하고 남을 사랑하며 인간만이 아니라 자연까지 확대하여 아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핵심가치인 인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인성알기[知], 인성 익히기[仁], 인성다지기[勇]를 토대로 ‘智仁勇 Learning’을 제안하였다. 仁의 대상을 자연까지 확대한 점과 실천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주목할 만하다.

최경춘은 「인성교육 콘텐츠로서의 천자문」에서千字文을 통해 대학생 인성교육을 하고자 하였다.¹⁸⁾ 최경춘은 인성의 개념을 ‘본성을 밝히고 유지하기 위해 인내하고 노력하는 심리적 역량’으로 규정하고, 인성교육의 개념을 ‘양질의 인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사고하게 하고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기다리는 행위’로 규정하였다. 천자문의 주제와 내용을 크게 16가지로 분류하고 각 한자를 ‘형성원리’와 ‘한자자원’, ‘한자문화학’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대개의 한문교과 지식을 활용한 인성교육 자료가 四書와 諸子書에서 나온 성어나 단문에 치우쳐져있는 것과 비교하면 천자문을 이용해 인성교육을 하고자 하였다는 시도는 새롭다.

16) 김은경, 「한문과 인성」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사례, 『한문교육연구』, 46집, 한국학문교육학회, 2016. p.239

17) 고재석, 「대학인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 동아시아 고전 『논어』를 통한 인성교육 모델 제언-」, 『儒學研究』 39집, 충남대유학연구소, 2018. p.9

18) 최경춘, 「인성교육 콘텐츠로서의 천자문」, 『문화와 융합』 39집, 한국문화융합학회, 2017. p.447

안순태는 「대학 교양한문 교육과 인성교육 -논어(論語) 세미나 수업 모형을 중심으로-」에서 『논어』 세미나 수업의 예를 통해 대학 교양한문 수업에서 지향해야 할 인성교육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떠한 과정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를 검토하였다.¹⁹⁾ 안순태는 ‘욕망’, ‘효도’, ‘언행’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를 설정하고, 해당 주제와 관련이 있는 지문을 『논어』에서 편집하여 그 가치들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으로 『논어』 세미나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와 유의할 점이 담겨있어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을 창안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외에도 『논어』를 통해 인성교육을 시도한 박진(2016)²⁰⁾, 『논어』를 활용한 인성교육의 교수 학습방안과 자기 효능감을 연구한 문성화 외(2017)²¹⁾ 등의 논문이 참고할 만하다. 대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 글감은 대부분 『논어』 등의 경서 문장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다음은 타 교과목의 사례에 대한 분석을 소략해보기로 한다.

안영석은 「인성교육의 관점으로 본 『윤리와 사상』 교육과정」에서 『윤리와 사상』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였다.²²⁾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학습량 및 수준의 적정화’, ‘도덕함을 위한 화두적 접근’, ‘사상사적 접근과 주제중심 접근의 조화’라는 주요 개정 사항을 실천적인 삶의 관점에서 교과 지식을 탐구하도록 하여 학습자의 도덕적인 삶과 지혜의 계발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성교육의 실질화를 위한 적극적 시도로 평가하였다. 또한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의 체계적인 학습과 탐구’, ‘윤리적 인식 능력과 성찰 능력의 심화’, ‘바람직한 윤리관의 정립’을 통한 학습자의 ‘성실·배려·정의·책임의 가치 실현’과 ‘올바른 인성 함양 및 윤리적 삶의 실현’의 지원을 언급하고 있는 ‘성격’부분은 <윤리와 사상> 과목이 인성교육의 일환으로서의 역할을 지향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도

19) 안순태, 「대학 교양한문 교육과 인성교육 -논어(論語) 세미나 수업 모형을 중심으로-」, 『한문 교육연구』 48집, 한국한문교육학회, 2017. p.95

20) 박진, 「『논어』를 통한 인성교육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석사논문, 2016.

21) 문성화, 홍순희, 송현주, 「『논어』를 활용한 인성교육의 교수·학습방안과 자기 효능감 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 37집,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17. p.385

22) 안영석, 「인성교육의 관점으로 본 『윤리와 사상』 교육과정」, 2018년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동계학술대회 발표집 p.69

덕 교과와 핵심가치가 어떻게 이를 통해 구현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유나는 「국어과 중학교 인성교육 교재연구」에서 국어과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성교육의 현황을 검토하고 국어과 인성교재의 교수·학습 방법을 재구성하였다.²³⁾ 국어과에서는 교과교육에서부터 인성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강조되어왔다. 이에 따라 개정 교육과정에서 인성 관련 교육과정이 상세화 되고 성취기준이 추가되었다. 김유나는 국어과 인성 교재 사용 방법에 대한 부재, 활동중심으로 편향된 교수·학습, 정리부의 부실함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김유나가 지적한 문제점은 한문과 교재에서도 나타나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눈여겨 볼만하다.

한문고전을 활용한 인성교육 방안에 대한 논문은 예전부터 있었다. 그러나 그 수가 현저히 적고 발표된 지가 너무 오래된 것들이었다. 최근에 발표된 논문들은 대부분 현직 교사들이 논의하고 있으며 자신이 개발한 수업 모형을 공개하고 수업 실천 사례를 통해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 공유하는 방식이었다. 다만, 이들의 논문은 현장에서 인성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한문고전을 활용한 인성교육이 실제로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제시된 사례들이 단편적이기 때문에, 한 학기나 한 학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구체적으로 인성교육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선행연구를 검토하며 공통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인성교육에서 가르치는 인성의 덕목들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교수자마다 각자가 정한 덕목을 가르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업시간마다 새로운 글감과 주제로 진행되는 수업은 통일감과 수업의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또 다른 문제점을 양산한다. 셋째, 인성교육을 위한 교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교사는 각자가 만든 교재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과중한 업무적 스트레스를 동반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는 일관성을 견지할 수 있는 학습 자료가不在한다는 점에서 불안정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23) 김유나, 「국어과 중학교 인성교육 교재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3.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된 후 모든 교과교육에서 인성교육을 분담하게 되었고, 漢文科는 인성역량을 교과 핵심역량으로 설정하면서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하나의 축이 되었다. 인성교육은 교과교육에서부터 시작해야하며, 한문교과 수업을 통해 인성교육이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인성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분석은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 국한하기로 한다. 이전의 교육과정은 인성교육 등의 정의적인 영역보다, 한문을 읽고 해석하는 한문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하였던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참고하지 않았다.

‘인성교육’이 어떻게 담보되어 있는지,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고에서 저본으로 사용한 漢文教科書는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하에 따라 제작된 한문 교과서로 제한하였다.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제작된 중학교 『한문교과서』는 총 17종이며, 고등학교 한문교과서는 『한문 I』이 13종, 『한문 II』가 1종이 있다.

한문교과가 인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Ⅲ장에서는 중등교육 한문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인성교육 관련 글감을 살펴볼 것이다. Ⅲ장에서는 한문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었던 인성교육의 개별 실체들과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들의 개별적 문제점들을 찾아내어 일반적 원리로 결론짓는 귀납적 연구방법을 이용한다. 모든 교과서를 비교·분석하고 그에 따른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 입각하여 제작되었던 한문교과서가 갖는 인성교육의 특징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또한 인성교육에 관한 새로운 덕목을 창출하고자 한다. 漢文科에서 그동안 시도되지 않았지만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인성 덕목을 개발 한다.

Ⅳ장에서는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성 함양’이라는 漢文科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인성덕목을 학습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활동을 통하여 학습자들이 내면화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덕목을 학습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고 他교과와 융합할 수 있는 모형을 제안한다.

본고는 한문교과의 덕목을 제시하고 수업의 방향을 제안하는 데에 그치며, 현장 수업에의 적용과 그에 대한 결과는 다음의 과제로 미루어 둔다.

II. ‘人性’과 ‘人性教育’에 대한 이론적 배경

인성교육에 대한 교수·학습법을 논의하기에 앞서 ‘인성’이 무엇이고,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의 정의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성’의 첫 번째 뜻은 ‘사람의 성품’이고, 두 번째 뜻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이다.

또한 ‘인성교육’에서 말하는 ‘인성’의 뜻은 사전의 두 번째 의미에 해당되며, ‘인성교육’은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지닐 수 있게끔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삶이라는 것은 시대별, 나라별, 사회별로 다른 맥락에서 이해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범위는 학자마다 다르고, 이를 측정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본고 II장에서는 ‘인성’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을 ‘교육부’와 ‘교육학계’, ‘道德科’ 그리고 끝으로 ‘漢文科’의 견해로 나누어 인성교육이 어떻게 정의되고 구체화되고 있는지, 각 교과에서는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를 서술하겠다.

1. 인성교육을 위한 정부기관과 ‘교육학’ 방면에서의 문제의식

정부는 인성교육을 위한 국가적 정책 수립을 위해 여러 차례 관련 자료를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교육의 특성 상, 정부의 발표 내용은 곧장 교육학 방면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각 교과목의 교육과정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며, 즉시 교과서의 내용에 반영된다. 본고에서는 본격적으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자 했던 2009년 이후의 교육부 발표에서 인성교육의 정의와 덕목을 찾아보았다. 구체적으로 인성교육의 정의와 덕목을 제시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으로, 점점 인성교육의 내용이 강화, 발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01〉 : 교육부에 정책에서의 인성교육의 정의와 핵심 덕목

	인성교육의 정의	인성교육을 위한 핵심 덕목·역량
창의·인성 교육 기본방안 (2009)	▶ 창의·인성교육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동시에 더불어 살 줄 아는 인재’를 양성하는 미래 교육의 본질이자 궁극적인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성을 촉진하는 인간관계 중심의 덕목 : 정직, 약속, 용서, 배려, 책임, 소유 ▶ 창의적인 인재가 갖추어야 하는 인성적 판단능력 : 도덕적 예민성, 도덕적 판단력, 의사결정능력, 행동 실천력
인성교육 강화 기본계획 (2013)	▶ 개인과 사회에 영향을 주는 성품, 기질, 개성, 인격 등을 올바르게 길러 친 사회적인 덕목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 : 정직, 책임 ▶ 우리 : 존중, 배려, 공감 ▶ 사회 : 소통, 협동
인성 교육법 (2015)	▶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 가치 덕목 : 禮, 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 핵심 역량 : 핵심 가치 덕목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지식, 의사소통 능력, 갈등해결 능력

2009년 〈창의·인성 교육 기본방안〉에서는 창의성과 인성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 하고 있어 인성교육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다. 그러나 창의와 인성은 엄연히 다른 분야로 하나의 영역으로 묶일 수 없다. 이러한 의견이 반영되어 이후의 자료에서는 인성을 따로 떼어내었다.

2013년 〈인성교육 강화 기본계획〉에서는 인성의 개념이 보다 세분화 되었다. ‘더불어 살 줄 안다’라는 표현을 ‘친 사회적 덕목을 갖추었다’로 바꾸어 표현하면서, 인성덕목을 ‘나’, ‘우리’, ‘사회’로 나누어 적용시키고, 각각 세부 덕목을 두었다.

2015년 〈인성교육법〉에서는 기존의 사회나 공동체간의 인성범주만을 언급했던 것에서 ‘자연’을 추가하여 제시한다. 세부적인 인성덕목을 제시해놓았던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가 인성덕목을 ‘핵심 가치 덕목’과 ‘핵심 역량’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인성교육 강화 기본계획>에서의 덕목은 항목이 세세하고 각 범주도 두 가지 씩으로 많지 않아 교과교육에 적용하기에 쉽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면, <인성교육법>에서는 보다 넓은 상위 개념을 제시하되 일차적으로 핵심을 짚어 놓은 후, 이를 각 교과와 성격에 맞게 해석할 여지를 둔 것으로 보인다.

교육학계에서의 인성교육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인성에 대한 교육학자들의 다양한 정의를 표²⁴⁾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02> : 교육학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성’의 개념 정의

구분	‘인성’의 개념 정의
황응연 ²⁵⁾ (1992)	환경에 대응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행동 및 태도, 동기, 인생 과정들의 총합. 사람들에게 있어 시간과 상황에 걸쳐 지속되는 독특한 구조이며, 인성은 어떠한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크게 변화될 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
이근철 ²⁶⁾ (1996)	좁게는 도덕성, 사회성 및 정서(감정) 등을 의미, 넓게는 지·덕·체 또는 지·정·의를 모두 골고루 갖춘 전인성
이윤옥 ²⁷⁾ (1998)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 사람의 전체적인 인상으로 성품, 기질, 개성, 인격 등 가치 개념의 의미를 내포
한국교육학회 ²⁸⁾ (1998)	사람의 마음의 바탕이 어떠하며, 사람 된 모습이 어떠하다는 것을 말하는 개념으로 사람의 마음과 사람됨이라는 2개 요소로 구성
남궁달화 ²⁹⁾ (1999)	사람의 성품이며, 성품은 성질과 품격, 성질은 마음의 바탕이고 사람됨의 바탕을 가리키는 말
조난심 外 ³⁰⁾ (2003)	인성은 태어나면서 지니고 있는 성격이나 특질의 개념이 아니라, 의도적 교육이나 학습에 의해 습득하거나 변화가 가능한 인간의

24) 천세영, 김왕준, 성기옥, 정일화, 김수화, 「인성교육 비전 수립 및 실천 방안 연구」, 인성교육 비전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2012-14, 교육과학기술부, 2012, p.43, 신현석·김상철, 「인성과 교육의 관계적 의미 고찰-‘문질빈빈’인성 고찰을 통한 교육인류학적 함의 탐색」, 『한국교육학연구』 23권, 2017, p.137을 인용하고 연도순으로 정리함.

	성품을 지칭
미국 교육부 ³¹⁾ (2007,2008)	존중, 공정성, 보살핌 등의 도덕적, 윤리적 가치와 책임감, 신뢰, 시민성 등을 망라하는 개념으로, 개인 또는 집단의 정서적, 지적, 도덕적 자질은 물론 이러한 자질들이 친사회적 행동으로 발현되는 것을 포함
현주 ³²⁾ (2009)	보다 긍정적이고 건전한 개인의 삶과 사회적 삶을 위한 심리적, 행동적 특성
문용린 ³³⁾ (2010)	신뢰롭고 협동적인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사는 생활태도와 품성
서지영 외 ³⁴⁾ (2010)	인간의 품성, 인간의 됨됨이, 인격 등과 같이 바람직한 의미를 포함하는 도덕적 가치가 포함되며 후천적으로 교육에 의해 길러질 수 있는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격적 특성
박성미 외 ³⁵⁾ (2012)	인간이 개인적으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심성과 사회적으로 갖추어야 할 가치 있는 인격 및 행동 특성
현주 외 ³⁶⁾ (2014)	긍정적이고 건강한 개인의 삶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특질과 역량
신현석·김상철 (2017) ³⁷⁾	더불어 조화롭게 사는 능력과 같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윤리의식

25) 황응연, 『심리학과 생활』, 배양사, 1992.

26) 이근철, 「초등학교 도덕·인성 교육의 발전방향」, 경인초등교육학회, 1996.

27) 이윤옥, 『유아를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창지사, 1998.

28) 한국교육학회, 『인성교육』, 문음사, 1998.

29) 남궁달화, 『인성교육론』, 문음사, 1999.

30) 조난심 외, 「인성평가 척도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서』, 2003.

31) 미국교육부, 「Partnerships in character education -state pilot projects 1995-2001-」, 『Lesson learned』, 2008.

32) 현주, 최상근, 차성현, 류덕엽, 이혜경, 「학교 인성교육실태 분석 연구 : 중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 보고 RR 2009-09』, 2009.

33) 문용린, 「이제는 창의·인성 교육이다」, 한국과학창의재단 칼럼, 2010.

34) 서지영, 남명호, 김소영, 이원석, 최미숙, 홍수진,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위한 수행평가 활성화 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2012.

35) 박성미, 허승희, 「청소년용 통합적 인성 척도 개발」, 『아동교육』, 21(3), p. 3-47

36) 현주, 장명림, 정광희, 한미영, 류덕엽, 「초중등 학생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Ⅱ) : 초등학교 인성교육 연수 자료 개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14-02, 2014.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인성’이란 ‘사람됨’을 위해 개인이 가져야할 성품이며, 사회적으로 더불어 살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이자, 어떠한 교육을 받고 어떠한 환경을 가졌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후천적인 영역이라고 한다. 학습자가 학교 교육을 통해 적절한 인성교육을 받는다면 건전하고 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근거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의 성품, 성질은 무엇일까? 인성 요소는 개인의 특성과 타인, 사회 속에서 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의 상황이나 시대적 요구 등에 따라 강조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교육학계에서 발표한 인성교육을 위한 주요 덕목 및 역량을 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다.³⁸⁾ 아래의 표는 <인성교육진흥법>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무엇보다도 한국사회에 적합한 인성교육 요소의 도출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그간의 연구현황을 살피고 범례적으로 인성교육 10대 덕목을 제시하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의 경험적 연구 결과를 보완한 것이다.

<표03> : 교육학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성’ 덕목(10개) ³⁹⁾

인성영역	인성덕목	인성역량
자기 존중 (자기애 · 자기에 대한 의무)	1. 정직·진실성	자기인식, 자기긍정, 자기표현
	2. 용기	긍정적 사고, 자존감
	3. 성실	근면성, 완전성
	4. 통합성	자기통제, 자주성, 자율성, 자아정체성
	5. 지혜	자아성찰, 판단력, 의사결정능력
타인 존중	6. 배려·박애	연민, 공감, 소통, 관용, 개방성, 봉사

37) 신현석·김상철, 「인성과 교육의 관계적 의미 고찰-‘문질빈빈’인성 고찰을 통한 교육인류학적 함의 탐색」, 『한국교육학연구』 23권, 2017, p.137

38) 김영래 외 「인성교육을 위한 핵심가치 덕목과 핵심역량의 연구모형에 관한 고찰」, 『교육의 이론과 실천』 20권 2호, 한국교육학회, 2005.)

39) 인성교육진흥법에서는 ①禮, ②孝, ③정직, ④책임, ⑤존중, ⑥배려, ⑦소통, ⑧협동 등의 8가지 항목을 지정해놓고 있는데, 교육학 방면에서의 인성덕목과는 禮, 정직, 책임 3가지가 공통된다.

(타인 사랑 · 타인에 대한 의무)	7. 책임·책임성	의무감, 교제능
	8. 공정·정의	비판적 사고, 정의감
	9. 시민성	공동체 의식, 준법성
	10. 예의	

인성영역을 크게 ‘자기에 대한 존중’과 ‘타인에 대한 존중’으로 나누고 덕목과 역량을 제시했다. 덕목을 살펴보면 교육부에서 발표한 정책이 교육학계에서 제시하는 인성덕목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자기존중에 대한 덕목들이 〈인성교육 강화 기본계획〉에서 ‘나’에 해당하고, 타인 존중에 대한 덕목들은 ‘우리’와 ‘사회’로 나뉘었다. ‘정직·진실성’, ‘성실’, ‘배려·박애’ 등은 한문교과서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인성덕목인 반면 ‘시민성’은 근대화 이후 생긴 개념이기 때문에 고전을 바탕으로 하는 한문교과서에는 관련 글감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2. 중등교육 ‘道徳科’에서의 ‘인성’ 개념과 교육적 가치

〈2015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은 ‘성격’에서 道徳科를 ‘인성교육의 핵심 교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타 교과 및 학교생활 전반을 통한 인성교육을 통합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교과’라고 정의하고 있다. 漢文科 안에서 漢文科만의 인성교육의 방향과 독창성을 찾기 위해서는 道徳科 교육과정을 비교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다.

〈2015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은 ‘21세기 한국인으로서 보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핵심 가치로 성실, 배려, 정의, 책임을 내면화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다.⁴⁰⁾ 이에 대한 주석은 다음과 같은데 인성교육의 학습내용과 연관이 있다.

40) 교육부 고시, 「도덕과 교육과정」, 제 2015-74호 [별책 6] p.5

성실(誠實)은 유교 전통에서 하늘의 명령[天命]으로서의 도(道)를 자신의 삶 속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지향으로 설정해온 핵심 가치이고, 배려는 불교 전통에서 강조해온 자신과 타자 사이의 분리될 수 없는 관계성을 인식하여 자애로운 눈길과 손길을 보내는 자비(慈悲)와도 연결되어 있는 핵심 가치이다.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도덕 교과의 전통적 배경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전통에 기반한 핵심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시민사회의 핵심 가치인 정의 및 책임과 연계시키고자 한다.

‘성실’과 ‘배려’라는 핵심가치는 유교 전통과 불교 전통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치를 담고 있는 전통 텍스트가 바로 한문 고전이다. 전통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는 부분은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며, 전통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발전 할 수 있다.’는 漢文科인성교육의 목표와도 맞닿아 있다.

다음으로는 道徳科에서 설정한 가치와 덕목을 <2009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과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을 비교하여 알아보겠다. 공통과정인 『중학교 도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표04> : <2009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41)

	주요 가치 · 덕목		중학교 1~3학년 내용영역별 ‘일반수준’
	전체지향	영역별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존중 책임 정의 배려	자율 성실 절제	(가) 도덕의 의미 (나) 삶의 목적과 도덕 (다) 도덕적 성찰 (라) 도덕적 실천
우리·타인과의 관계		효도 예절 협동	(가) 가정생활과 도덕 (나) 친구 관계와 도덕 (다) 사이버 윤리와 예절 (라) 이웃에 대한 배려와 상호 협동

4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도덕과 교육과정」, 제 2011-361호 [별책 6]. p.16, ‘심화수준’은 생략함.

사회·국가·지구·공동체와의 관계	준법·공익 애국심 통일의지 인류애	(가) 인간 존엄성과 인권 (나) 문화의 다양성과 도덕 (다) 분단 배경과 통일의 필요성 (라)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자연애 생명 존중 평화	(가) 환경친화적인 삶 (나) 삶의 소중함과 도덕 (다) 과학 기술과 도덕 (라) 문화와 도덕

〈표05〉 :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42)

영역	핵심가치	일반화된 지식
자신과의 관계	성실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도덕을 공부함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고, 바람직한 자아정체성을 형성해야 한다.
타인과의 관계	배려	가정·이웃·학교 및 온라인 공간에서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고,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정의	인간의 존엄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보편도덕에 근거하여 보장하고, 한 국가 공동체의 도덕적 시민으로 사회 정의 및 평화통일 실현에 기여하며, 세계 시민으로서 지구 공동체의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연·초월과의 관계	책임	환경 친화적 삶과 과학 기술의 윤리적 사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향하고, 윤리적 성찰을 통해 삶과 죽음의 의미와 마음의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道徳科는 인성의 범위를 ‘자연·초월과의 관계’에까지 설정하였다.⁴³⁾ 〈2009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은 주요 가치·덕목을 제시하고 인성역량을 ‘일반수준’으로 풀어썼다

42) 교육부 고시, 「도덕과 교육과정」, 제 2015-74호 [별책 6] p.7-8, ‘내용요소’와 ‘기능’은 생략함.

43)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는 자신, 타인,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인성덕목을 설정하다가 2015년이 되어서 자연관이 추가 되었다.

가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핵심가치를 설정하고 일반화된 지식을 제시하는 식으로 변경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전체지향’으로 설정된 덕목 중 ‘존중’은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빠지고,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은 ‘핵심 가치’라는 이름으로 ‘성실, 배려, 정의, 책임’의 네 가지만을 제시하였다. ‘핵심 가치’는 〈인성교육법〉에도 등장하는 개념인데 〈인성교육법〉은 道徳科 교육과정과 개념어를 같게 설정했으며, ‘성실, 배려, 정의, 책임’은 〈인성교육법〉의 핵심 가치에 모두 포함되고 있다.

道徳科의 인성 영역 중 자연·초월과의 관계는 한문교과서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영역이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구 온난화 등의 이상기후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의 환경이슈가 계속 되는 지금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환경 친화적인 삶과 과학 기술의 윤리적 사용을 위한 인성교육이 한문교과에서도 필요하다.

3. 중등교육 ‘漢文科’ 교육과정 변천에 나타난 ‘인성교육’

이 절에서는 漢文科 인성교육은 어떠한 양상을 띠고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漢文科 인성교육에 대한 논의는 교육과정에 어떻게 반영되어 변화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육과정 내용을 살펴보겠다. 인성교육 담론이 본격적으로 반영된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⁴⁴⁾과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⁴⁵⁾을 공통과정인 중학교 한문 중심으로 층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漢文科에서 추구하는 人間像과 漢文科의 성격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과목의 첫 부분에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인간상’을 밝히고 ‘목표’에서 각 교과목의 특징과 성격을 기술하고 있다면,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는 공통기술 사항이 사라지고 각 교과목의 ‘성격’을 통해 교과목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44)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한문과 교육과정」, 제 2011-361호 [별책 17]. 2009개정 교육과정은 2012년 12월까지 계속 수정되었지만 인성교육의 내용은 2011년 이후로 변경사항이 없다.

45) 교육부 고시, 「한문과 교육과정」, 제 2015-74호 [별책 17].

〈표06〉 : 〈2009 개정 漢文科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⁴⁶⁾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라.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

〈표07〉 :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목표⁴⁷⁾

한문과는 다양한 유형의 한문 자료에 담긴 선인들의 삶과 지혜, 사상과 감정을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며, 우리 생활 전반에 면면히 이어 온 전통문화를 바르게 계승하고,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교과이다. (중략)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고,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계승·발전시키며,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유의한다.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 ‘가’항의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다’항의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 ‘라’항의 ‘배려와 나눔의 정신’등에서 漢文科 인성교육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인성교육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지는 않다.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는 전 과목 공통 기술 사항이 사라지고 개별 교과의 성격을 기술하면서 인성교육의 내용이 보충·심화되었다.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교과의 ‘성격’에서 인성교육과 관련해 언급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46)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한문과 교육과정」, 제 2011-361호 [별책 17]. p.3

47)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한문과 교육과정」, 제 2011-361호 [별책 17]. p.4

〈표08〉 :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교과와 ‘성격’⁴⁸⁾

한문 기록 속에는 우리의 정신문화가 대부분 축적되어 있어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관의 문제 등을 치유할 수 있는 자료가 많으므로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한문 학습이 필요하다.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밝히고 있는 ‘한문 교과와 성격’에서는 한문 교과를 통해 기를 수 있는 중요 역량을 다섯 가지⁴⁹⁾를 밝히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인성 역량’이다.

〈표09〉 :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인성역량에 대한 설명

인성 역량은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기초적 능력과 자질을 지속적으로 계발·관리함으로써, 변화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다. 또한 한문 기록에 담긴 전통문화를 바르게 익혀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수용·실천함으로써, 공동체의 문제 해결 및 발전을 위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능력이다.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은 ‘인성역량’을 교과와 중요 역량 중 하나로 설정하면서 교과 내에서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교과와 ‘성격’은 그 교과와 본질을 기술한 것이며, 그 본질로부터 개별 교과와 중요성, 가치 및 교과 내용 등이 도출된다. 따라서 ‘성격’은 개별 교과와 당위성에 관한 이론이며 동시에 개별 교과교육이 지향할 가치를 담는 중요한 부분이다.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은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 비해 서술을 추가하여 漢文科의 성격을 좀 더 명확히 하였다.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위한 한문 학습에서 “현실의 여러 가지 가치관문제”의 해결이 중요한 이유로 등장하여, 현실의 가치관 문제와 관련된 제재의 사용이 보다 강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⁵⁰⁾

48) 교육부 고시, 「한문과 교육과정」, 제 2015-74호 [별책 17] p.2

49) 의사소통 능력, 정보처리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 인성 능력, 심미적 감성

② 漢文科의 목표

중학교 한문 과목의 ‘목표’에서도 인성에 관련한 목표를 찾을 수 있다. 한문과의 목표는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과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이 거의 비슷한데 다음 표와 같다.⁵¹⁾

〈표10〉 :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목표

가.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의 음과 뜻을 알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나.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문 독해와 언어생활에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다. 다양한 유형의 한문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심미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라.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며,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닌다.
마.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한문교과에서는 한문 텍스트 속에서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인성덕목을 추출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할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는 것과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한다고 해서 인성역량이 길러지는 것도 아니고 옛날의 삶과 지혜가 현대의 우리에게 바로 적용되는 것도 아닐 것이다.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③ 내용체계의 비교

내용체계에서는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큰 변화가 있었다.

50) 류준경,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특징과 의미」, 『교육연구』 65집 2016. p.119-144.

51) 교육부 고시, 「한문과 교육과정」, 제 2015-74호 [별책 17], p.4,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목표 중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문 독해와 언어생활에 활용하려는 능력을 기른다.’는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목표 ‘나’, ‘다’로 분리되었다.

〈표11〉 :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⁵²⁾

영역	내용	
문 화	한자 문화	전통문화의 이해와 계승
		한자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교류
	언어생활과 한자 문화	언어생활 속의 한자 어휘 알고 활용하기

〈표12〉 : 2015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체계⁵³⁾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한 문 의 활 용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	한자 어휘에는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하는 말도 있고, 다른 교과에서 학습 용어로 사용하는 말도 있다.	일상용어	읽기 풀이하기 이해하기
			학습 용어	표현하기 탐구하기
			성어	조사하기 분석하기 활용하기
한문과 인성	한문 기록에는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이 담겨 있다.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	읽기 풀이하기 이해와 공감하기 조사하기 토의·토론하기 적용하기	
				우리의 전통문화는 한자를 주된 기록 수단으로 하여 보존·전승되고 있다.
한문과 문화	한자문화권에 속한 여러 나라들의 언어와 문화에는 공통적 요소가 있다.	한자문화권의 언어와 문화	읽기 풀이하기 조사하기 토의·토론하기 적용하기	

5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한문과 교육과정」, 제 2011-361호 [별책 17], p.5

53) 교육부 고시, 「한문과 교육과정」, 제 2015-74호 [별책 17], p.4-5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은 ‘문화’라는 영역을 ‘한자 문화’와 ‘언어생활과 한자 문화’로 나누고 ‘한자문화’ 안의 ‘전통문화의 이해와 계승’에서 인성영역을 다루었다. 직접적으로 내용 체계단계에서 ‘인성’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학습내용의 설명에서 ‘한자문화’영역이 인성교육을 담당할 것임을 확인 할 수 있다.⁵⁴⁾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은 인성영역을 더욱 심화 강조하여 ‘한문의 활용’ 영역의 핵심개념으로 제시하게 되었다.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소영역의 한 부분이었던 인성영역이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는 중영역의 핵심 개념으로 설정되면서 한 자리를 차지했다는 점은 인성교육의 위상이 강화된 것을 보여준다. 인성영역이 추가되면서 정의적 영역을 강조한 것은 교육과정 내에서 문화 영역이 지속적으로 강화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대학 입시에서 비중이 약화되어 중등학교에서 비주요 과목이 된 한문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도 보인다.⁵⁵⁾

④ 학습내용과 성취기준 비교

漢文科 인성 영역에 대한 설명과 성취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3〉 :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학습 내용 설명과 성취기준⁵⁶⁾

우리의 선인들은 수천 년 동안 생활 속의 정서, 지혜, 사상 등을 한문으로 기록해 놓았다. 한문 기록 속에 담긴 생활의 지혜와 사상을 통해 학습자가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다. 또한 우리 민족의 풍부한 전통문화 가운데 학습자의 정서에 맞고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을 정선하여 이를 계승·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한다.

(1) 선인들의 지혜를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며,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54) 아래의 학습 내용 설명과 성취기준을 참고하기 바람.

55) 류준경,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특징과 의미」, 『교육연구』 65집 2016. p.119-144

56)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한문과 교육과정」, 제 2011-361호 [별책 17]. p.10

〈표14〉 :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학습 내용 설명과
성취 기준, 학습 요소⁵⁷⁾

한문 기록 속에는 현대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예컨대 인간의 존엄성 상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시, 물질 만능주의와 극단적 이기주의의 만연 등에 대해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자료들이 많다. 따라서 현재적 의미에서 가치가 있고 실천 가능한 내용을 정산하여 학습함으로써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9한04-01]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지혜, 사상 등을 이해하고, 현재적 의미에서 가치가 있는 것을 내면화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에 대한 이해와 공감, 현재적 의미와 가치 발견, 생활 적용, 가치관 정립, 인성함양

두 교육과정의 학습 내용 설명의 요점은 ‘한문 고전 텍스트는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비슷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큰 차이가 있다.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설명은 한문 고전이 갖는 수천 년 동안 쌓아온 풍부한 자료의 ‘계승·발전’에 중점이 있다면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은 한문고전이 현대의 어떤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고 한문 고전에서 얻은 인성 덕목의 ‘실천’과 ‘생활 적용’에 중점을 두었다.

학습 내용은 교과에서 어떤 내용을 학습하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인성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문과 교육과정 내의 다른 영역 학습 내용과 비교하면 인성교육에 관한 학습 내용은 빈약하고 구체적인 성취 기준 해설이 제시되어있지 않다. 예를 들어 ‘한문의 독해’에 대한 학습 내용을 보면 학습 요소로 ‘문장의 구조’, ‘문장의 유형’, ‘끝어 읽기’ 등 구체적인 학습 내용이 제시되어 있고 성취 기준 해설에서 해당 학습 요소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문과 인성’의 학습요소는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에 대한 공감’, ‘현재적 의미와 가치 발견’ 등 漢文科 목표나 성격에서도 서술했던 내용을 반복하는데 그치고 자세한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7) 교육부 고시, 「한문과 교육과정」, 제 2015-74호 [별책 17], p.16

⑤ 교수·학습 방법 비교

〈표15〉 :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⁵⁸⁾

(다) 문화 영역의 ‘한자 문화’는 토론 학습법, 비교 학습법, 웹 기반 중심 학습법, 문제 중심 학습법 등 다양한 수업 방법을 적용하여, 전통문화의 이해와 계승 및 한자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

〈표16〉 :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⁵⁹⁾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학습할 때에는 명언·명구 속에서 핵심 사상 찾기, 영상 매체를 활용한 토의·토론하기, 명언·명구 암송하기, 자경문(自警文) 만들기, 성찰 일지 쓰기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는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수·학습 방법에 직접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 새로 추가되었다. 학습자가 글감 속에서 직접 핵심 사상을 찾아보고 토의·토론을 한다든가, 자경문을 만들어보고 성찰 일지를 쓰는 활동은 학생 스스로 인성덕목을 학습하고 체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소개된 교수·학습 방법이 자아 성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있다는 비판도 있다.⁶⁰⁾

한문 고전 텍스트 안에서 인성교육에 도움이 될 덕목을 찾고 가르친다는 것은 漢文科의 정체성을 살리면서도 漢文科가 나아가갈 새로운 방향이 되고 漢文科의 활성화를 위한 돌파구가 될 것이다. 그러나 道德科에서 인성의 영역을 설정하고 덕목을 제시한 것과 비교해 본다면 한문과 교육과정에서의 인성교육은 아직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허점이 있다.

58)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한문과 교육과정」, 제 2011-361호 [별책 17], p.16

59) 교육부 고시, 「한문과 교육과정」, 제 2015-74호 [별책 17], p.16

60) 안세현, 「한문교육에서의 인성교육」, 『한문교육연구』, 한국한문교육학회 제 49집, 2017, p.316

교육부 발표 정책인 〈인성교육 강화 기본계획〉 과 〈인성교육법〉 에서 핵심 가치 덕목으로 제시한 것 중 중복되는 인성덕목인 ‘정직, 책임, 존중, 협동’은 한문고전에서 특히 쉽게 찾을 수 있는 덕목들이다. 특히 〈인성교육법〉 의 ‘禮’와 ‘孝’를 가르칠 수 있는 대표적인 글감을 가진 교과가 바로 ‘한문’교과라고 단정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도덕교과는 성실·배려·정의·책임이라는 4개의 핵심 가치를 내면화함으로써 인성의 기본 요소를 갖추게 하고, 동시에 도덕적인 삶을 자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길러주는 교과임을 인지하였다. 특히 여기서 ‘성실’은 전통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서술되고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관련한 典據로서의 자료는 한문텍스트임에 분명하는 점이다. 이를 통해 볼 때, 漢文科 역시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교과로서 한 축을 담당하기에 충분한 자격과 역할을 자임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다. 그러나 교육부 정책 및 道德科와 비교해 보니, 향후 漢文科에서의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의 선결과제가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학교 교육에서 인성교육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성덕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한다는 것이다. ‘교육학계’와 ‘道德科’는 인성교육의 영역과 덕목에 대해 고민하고 교육과정이 바뀔 때 마다 그것을 반영하곤 하였다. 그러나 ‘漢文科’ 안에서의 인성교육의 정의와 덕목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인성’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가 내려진 후, 대략의 영역과 덕목을 설정해 나간다면 漢文科 안에서의 인성교육 방향이 구체적으로 설정되고, 이에 따라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론도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인성 덕목은 마땅히 전통적 가치관의 보고라 할 수 있는 한문고전에 근거하되, 지금 시대와 동떨어진 진부하고 전근대적인 인성덕목들을 과감히 비판하고, 시의성과 융통성을 갖춘 새로운 인성덕목을 창출해내야만 한다. 지금의 漢文科 인성교육은 전통적 가치관에 대한 ‘비판적 이해’가 결여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한문고전 텍스트 자체가 갖는 옛 글들을 읽고 해석(강독과 감상)하여 인성 함양과 건전한 가치관을 지향하라는 주입식이거나, 이를 통한 계도에 불과해보이기도 하다. 이러한 방식은 ‘한문교육은 곧 전통 유교사상이나 가르치는 교육에 불과하다’라는 잘못된 선입견을

심어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⁶¹⁾ 이와 같은 선결과제를 남기고, 다음 장에서는 그 간 『한문교과서』에서 다루졌던 ‘인성함양’과 ‘바람직한 가치관’이 어떠한 유형으로 학습되었는지를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61) 안세현, 위의 논문 p.321

Ⅲ. 『한문교과서』에서의 인성교육 분석과 인성덕목 창출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정규 교과시간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제언하는 것이다. 교과 수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교재는 역시 ‘교과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의 분석이 가장 먼저 행해져야 한다.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집필된 중학교 『한문교과서』는 총 17종이며, 고등학교 한문교과서는 『한문 I』이 13종, 『한문 II』가 1종이 있다. 이 교과서들은 2018년에 발행되어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부터 사용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한문교과서를 비교 분석하여 교과서 내에 어떤 학습목표와 글감이 있는지, 인성역량을 기를 수 있는 읽기 자료로는 어떤 것이 제시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위계는 어떠한지, 또 인성교육을 위하여 어떤 학습활동들이 제안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는 본 장의 연구 자료인 한문교과서 목록을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나누고 출판사의 ‘가나다’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이후부터 출판사의 명칭은 편의상 다음 표의 약호를 사용하도록 한다.

<표17> :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한문교과서』 목록

	출판사	저자
Ⓐ	교학사	임완혁, 조영호, 김태선, 임재범
Ⓑ	금성출판사	오형민, 김병수, 장운혁, 김진봉
Ⓒ	다락원	송재소, 배기표, 김호기, 변유경, 안병후, 김충겸, 이미영
Ⓓ	대명사	이향배, 송영길, 김송기, 정훈기
Ⓔ	대학서림	이병주, 허시봉, 윤세훈, 김주화
Ⓕ	동아출판	박성규, 윤재민, 백광호, 정동운, 장진아, 이현주
Ⓖ	동화사	이상진, 최상근, 이지곤, 원주용, 김인서
Ⓗ	미래엔	심경호, 송혁기, 송태명, 임동헌, 홍은정, 홍경원
Ⓘ	비상교육	이동재, 김병철, 고청미, 정효영, 오영준
Ⓛ	씨마스	김영진, 김윤조, 주석준, 이용훈, 최중형, 오태영, 이민지, 김설화
Ⓚ	와이비엠	김용재, 류준경, 박유희, 이수정, 정혜선, 강미향
Ⓛ	이젠 미디어	김성중, 김동규, 곽현주, 서형주, 이정순
Ⓜ	장원교육	진재교, 신영주, 최돈욱, 조수현
Ⓝ	중앙교육	이현교, 고진성, 김용훈, 김정은, 조남신

㉠	지학사	안재철, 원용석, 이우경, 엄선용, 구제찬, 김은주
㉡	천재교과서	안대회, 안기봉, 황성하, 이한신, 박동진, 장현곤, 서문기
㉢	한국학력평가원	이병순, 정만호, 이승덕, 이지애, 안지나

〈표18〉 :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목록

기호	출판사	저자
㉠	금성출판사	오형민, 김병수, 장운혁, 김진봉
㉡	다락원	송재소, 배기표, 김호기, 변유경, 안병휴, 김충겸, 이미영
㉢	대명사	이향배, 송영길, 김송기, 정훈기
㉣	대학서림	신표섭, 이윤찬, 허시봉, 김준영
㉤	동아출판	박성규, 윤재민, 백광호, 이승현, 이동일, 공민정
㉥	미래엔	심경호, 송혁기, 송태명, 임동헌, 홍은정, 홍경원
㉦	비상교육	이동재, 이성형, 허연구, 김경익, 정규돈
㉧	씨마스	김영진, 김윤조, 주석준, 이용훈, 최종형, 오태영, 이민지, 김설화
㉨	와이비엠	김용재, 류준경, 김미화, 이덕호, 김성호, 진태훈
㉩	이젠미디어	김성중, 김동규, 심재경, 최정윤, 심의식
㉪	장원교육	진재교, 신영주, 최돈욱, 김명수
㉫	지학사	안재철, 원용석, 엄선용, 이우경, 박병대, 구제찬
㉬	천재교과서	안대회, 안기봉, 황성하, 함영대, 이한신, 장현곤, 서문기

〈표19〉 :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문 II 교과서』 목록

기호	출판사	저자
㉭	천재교과서	안대회, 안기봉, 황성하, 함영대, 이한신, 박동진, 장현곤, 서문기

인성역량은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핵심역량이자,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특히 위상이 높아진 역량이다. 인성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글감의 수록 현황을 알아보겠다.

1. 인성덕목에 관한 영역별 및 빈도수 분석

한문교과서 내 인성교육 글감은 학습목표와 본문, 보충 읽기자료로 등이 있다. 이 절에서는 글감을 위계에 따라 분석해보고 보완할 점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한문교과서 글감을 통해 설정할 수 있는 인성덕목

중·고등학교 교과서 글감에는 어떠한 인성덕목이 제시되었는지 분석하였다. 한문과 교육과정은 인성의 영역과 덕목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나 道徳科와의 통일성을 갖고, 쉽게 비교하고자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로 영역을 나누었다. 덕목은 道徳科 교육과정보다 조금 더 많은 덕목을 제시하고 있는 「인성교육법」의 덕목 분류를 따르되, 「인성교육법」의 덕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따로 모았다. 한 단원 안에 여러 글감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영역과 덕목에 중복으로 포함하였다.

■ 중학교 한문교과서 인성 영역별 단원 수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33단원	55단원	40단원	3 단원

■ 고등학교 한문교과서 인성 영역별 단원 수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20단원	18단원	17단원	0단원

■ 『중학교 한문교과서』 ‘인성덕목’별 단원 수 62)

禮	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0단원	11단원	14단원	1단원	11단원	23단원	18단원	14단원

62) ‘교육학’이나 ‘도덕교과’에서도 다루지고 있는 인성덕목을 기준으로 하여 빈도수를 분석한 표이다.

■ 고등학교 한문교과서 ‘인성덕목’별 단원 수

禮	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0단원	2단원	4단원	1단원	0단원	8단원	7단원	5단원

■ 한문교과의 개성이 드러나는 덕목 - 중학교(13개) 63)

자기수양	배품	리더십	仁	義	우애	선행	근검
26단원	17	11	7단원	7단원	7단원	5단원	5단원
청렴	가족애	평등	자연관	겸손			
3단원	3단원	2단원	1단원	1단원			

■ 한문교과의 개성이 드러나는 덕목 - 고등학교(9개)

자기수양	배품	리더십	仁	義	우애	선행	근검
19단원	3단원	5단원	3단원	1단원	3단원	3단원	6단원
겸손							
1단원							

교과서 분석 결과 중·고등학교 교과서 모두 타인과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글감이 많았다. 미래 사회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문교과서를 학습하는 것만으로도 그에 어느 정도 가까워 질 수 있을 것이다. 자연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글감은 중학교에서 3단원, 고등학교에서 0단원으로 다른 인성 영역에 비하여 현저히 적었다.

인성덕목으로는 중학교 교과서에 ‘자기수양’을 학습할 수 있는 글감이 26단원으로 가장 많았고, ‘배려’를 학습할 수 있는 글감이 23단원, ‘소통’을 학습할 수 있는 글감이 18단원으로 많이 실려 있다. 그 뒤로 ‘정직’이 14단원, ‘협동’이 14단원 실려 있었

63) ‘한문교과’에서만 다루지는 세부 인성덕목이라 할 수 있다. 중학교(13개)가 고등학교(9개)에 비하여 좀 더 세분화·다양화시켜 교과서에 실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고등학교 교과서 역시 ‘자기수양’을 학습할 수 있는 글감이 19단원으로 가장 많이 실려 있었다.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배려’, ‘소통’이 각각 8단원, 7단원으로 많이 실려 있는 인성덕목이었다.

많은 단원에서 다루고 있는 인성덕목은 한문교과서에서 집중하는 인성덕목이자 한문교과에서 인기 있는 덕목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기수양’이나 ‘배려’와 같은 덕목이 여기 해당한다. 이에 반해 ‘예’나 ‘책임’에 관한 글감은 굉장히 적었는데 이러한 인성 덕목은 한문교과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고 있는 부분이다.

〈인성교육법〉이나 〈道徳科 교육과정〉의 인성 덕목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한문교과에서 다루고 있는 덕목도 많이 찾을 수 있었다. ‘자기수양’, ‘배움’ 등의 덕목이었는데 이 덕목들은 漢文科만이 가진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인성 덕목으로 볼 수 있다.

‘자기수양’은 한 교과서 안에서 여러 차례 반복하여 학습하게 되는 덕목이었다. 우리는 소수의 인성덕목만을 갖춘 사람을 ‘인성이 바른 사람’, ‘인성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지 않는다. 학습자에게 한문과의 개성을 살린 다양한 글감을 제공하여, 여러 덕목을 골고루 기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문교과서에는 지금 사회의 이슈인 환경을 아끼고 보존할 수 있는 환경관, 자연이나 생명과 공존할 수 있는 생명관, 평등관 등의 글감은 실리지 않았다. 한문교과서의 개성을 살린 덕목을 가르치되 현대의 쟁점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글감도 개발하여 신는다면 漢文科는 학습자에게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성을 갖추 수 있는 인성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동일 글감의 사용

교과서에 실린 글감은 학습 내용 그 자체가 된다. 글감을 읽고 해석한 다음 감상하고 느끼는 과정에서 인성교육이 진행되는 것이다. 그런데 한문교과에서 인성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글감은 동일한 것이 많았다.

예를 들어, 평강공주가 소신을 지켜 온달에게 시집하고자 한 일화는 중학교 교과서 ㉠, ㉡, ㉢, ㉣, ㉤, ㉥에 수록되어 있고 고등학교 교과서 ㉦에도 수록되어 있다. 만덕

의 배려와 나눔 정신으로 제주도 도민을 구휼한 이야기는 중학교의 ㉑, ㉒, ㉓, ㉔, ㉕, ㉖ 교과서에, 고등학교 교과서 ㉗, ㉘, ㉙, ㉚, ㉛, ㉜에도 실려 있다. 이외에도 산문 중에는 형제가 강물에 금을 던진 이야기가 중학교 교과서 ㉑, ㉒에, 고등학교 교과서 ㉜에, 농부가 소가 들리지 않는 곳에서 소의 우열을 가린 이야기가 중학교 ㉑, ㉒, ㉓, ㉔ 교과서, 고등학교 ㉕, ㉖, ㉗, ㉘ 교과서에 수록돼 있다. 경서 문장으로는 ‘己所不欲이면 勿施於人이라.’를 많은 교과서에서 볼 수 있었는데 중학교 교과서 ㉑, ㉒, ㉓, ㉔, ㉕ 고등학교 교과서 ㉕에 실려 있었다.

중복으로 실린 글감은 쉬운 글자들로 이루어져있어 해석하기에 어렵지 않고 주제와 교훈이 뚜렷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글감은 수업에 적용하기 쉽기 때문에 교과서 집필자나 교사에게 인기 있을 수밖에 없다. 학습자에게 교육적 가치가 충분하며 글감의 대부분이 중·고등학교 기초한자에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선별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나 모든 단계의 교과서에 동일한 글감이 반복하여 실려 있고 새로운 교육과정이 발표되어도 글감이 바뀌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중·고등 한문교과서가 학교 급에 상관없이 같은 글감을 공유하면서 약간의 길이 차이만 있을 뿐이라면 학습자는 다양한 덕목과 글감을 학습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또한 중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고등학교에서 반복하여 학습하게 되므로 지루함을 안겨줄 수 있으므로 교과서 집필자는 더욱 다양한 글감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2. 장르별 인성교육에 관한 글감의 위계와 층차

한문 교과는 학습 내용을 한자, 단어, 성어, 단문, 산문, 한시, 경서로 나눈다. 중·고등학교 한문교과서 내에서 인성교육에 활용된 글감을 학습 내용 별로 정리하고 그 소단원의 수를 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다. 한 단원에서 학습요소가 단어와 성어, 단문과 경서 등과 같이 중복되어 나타난 경우 각 학습요소에 모두 포함시켰다. 학습 목표에서 인성교육을 위한 글감이라고 나타내지 않고 있더라도 활동이나 보충 읽기자료에서 인성교육에 관한 글감을 제시하는 경우도 모두 포함시켰다.

■ 중학교 교과서 내 학습요소 별 인성교육 내용을 포함한 단원 수

한자	단어	성어	단문	산문	한시	경서
0 단원	11 단원	31 단원	34 단원	47 단원	2단원	22 단원

■ 고등학교 교과서 내 학습요소 별 인성교육 내용을 포함한 단원 수

한자	단어	성어	단문	산문	한시	경서
0 단원	0 단원	9 단원	16 단원	46 단원	0 단원	12 단원

교과서 내용을 학습요소로 별로 분석해 본 결과 인성교육에 활용되는 글감은 중·고등학교 교과서 모두 단문과 산문에 치우쳐져 있으며 그 뒤를 경서가 잇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자와 한시를 가르치는 단원에서는 인성교육과 관련한 글감이 매우 적고 보충 읽기자료도 제시하고 있지 않았다. 인성교육에 관한 내용을 담으려면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때로는 교훈적인 이야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그리 놀랄만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문과 산문, 경서 등의 단원이 교과서의 후반부에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문교과의 특성상 한문교과서의 내용은 한자의 짜임부터 시작하여 단어, 성어, 단문, 산문 등으로 확장된다. 이러한 단원 배치 순서가 바뀐다면 학습자들은 큰 혼란과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단어에서부터 인성교육 요소를 담고 있는 ㉞교과서가 3.2단원에서, ㉟교과서가 4단원에서, ㊱교과서가 4단원에서 인성교육 요소를 제시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교과서는 성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단원 이후부터 인성교육 내용을 담고 있다. 성어는 평균적으로 7단원에서부터 등장하는데, 지금의 교과서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1학기 후반 혹은 2학기가 되어야 처음 인성교육을 받게 된다. 대개의 학교에서 한문수업이 한 학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실제로 인성교육을 위한 글감을 다루는 단원은 한 학기 동안만 배운다는 것이 된다. 인성교육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학습되어야 하고 계속하여 관련 글감에 노출되어야 학습자들이 해당 덕목을 이해하고 내면화 할 수 있다.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의 전반부를 담당하는 단원에서도 인성교육

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한자는 오랜 기간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며 발전해온 글자이기 때문에 자형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으며 문화적 함의를 가진 글자이다. 예를 들어 상형의 원리로 이루어진 共, 與 등의 글자는 함께 힘을 모으는 모습을 표현한 글자이다.

〈표20〉 : 象形字를 통한 인성교육 예시 64)



이러한 글자를 학습하면서 왜 ‘협동’해야 하는지, 행복한 반을 만들기 위하여 어떤 ‘협동’을 할 수 있는지에 생각해 보는 활동을 할 수 있다. 교과서 전반부인 한자 단계에서 학습한 내용이 교과서 후반부의 학습내용인 ‘향약의 덕목과 상부상조’나 ‘협동’을 ‘나눔’으로 확장시켜 김만덕의 일화등과 연결시킬 수도 있다.

회의를 원리로 만들어진 信, 吉 등의 한자로는 ‘말하기의 중요성’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信은 사람의 말에는 거짓이 없이 믿을 만 해야 한다는 의미로 人(亻)과 言이 더해진 글자이다.⁶⁵⁾ 吉이은 선비는 선하고 좋은 말을 해야 한다는 의로 士자와 口글가 더해진 글자이다.⁶⁶⁾ 이러한 한자는 미래엔 8단원 ‘신중한 말 한마디’, 평강공주의 이야기나 증자의 어머니가 증자에게 돼지고기를 삶아준 일화⁶⁷⁾, 칸트의 아버지가 금덩이를 내놓은 일화⁶⁸⁾와 연결시킬 수 있다.

단어를 가르칠 때는 ㉔교과서의 경우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㉔교과서의 7단원

64) www.zidic.net에서 字形 이미지를 발췌하였다.

65) 하영삼, 『연상한자』, 예담, 2004, p.185

66) 정민, 박수필, 박동욱, 강민경, 『살아있는 한자 교과서』, 휴머니스트, 2004, p.74

67) ㉔교과서 22단원

68) ㉔교과서 25단원

한시는 단문이나 산문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제재를 통해 인간의 감정과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전거 없이 인성덕목을 제시하고 주입하는 것 보다 작품을 심미적으로 감상하고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한시도 인성교육의 자료가 되기에 충분하다. 지금의 한시파트는 한시의 해석과 형식에 대한 이해, 시인에 대한 이해와 내용 감상 등을 학습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한시를 감상할 때에는 지은이의 생애와 사상을 통해 감상하게 되므로 지은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인생관, 자연관 등을 배우게 된다. 이러한 것들이 현대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면 한시도 인성교육을 담당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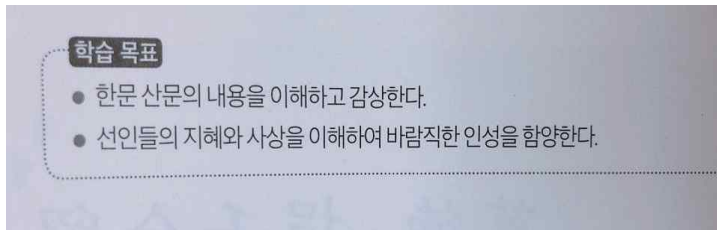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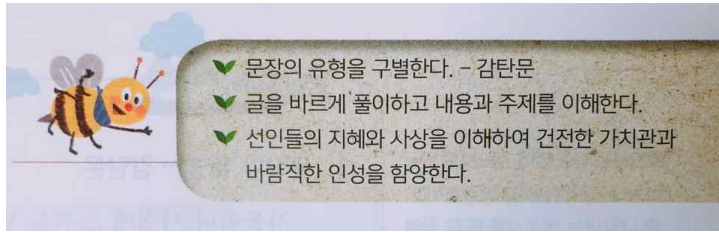
3. 본문 글감과 학습활동 간의 정합성 및 교육활동의 한계

1) 학습목표에 따른 인성덕목의 서술 양상

학습목표는 해당 단원의 학습 방향을 나타내 주는 표지로 학습목표 설정은 수업설계의 첫 단계가 된다. 학습 목표에 따라 해당 단원의 학습 내용과 과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학습목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습목표는 교사가 매 수업마다 자체적으로 설정하기는 하지만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목표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도 교과서의 학습목표를 보고 공부하기 때문에 교과서에 서술된 학습목표는 큰 영향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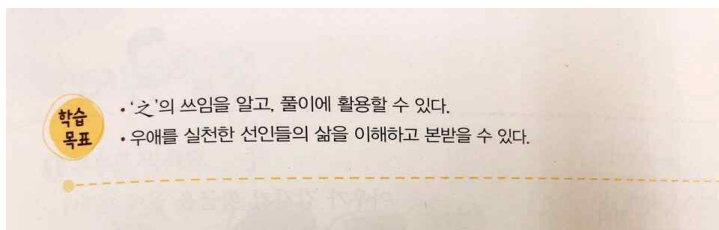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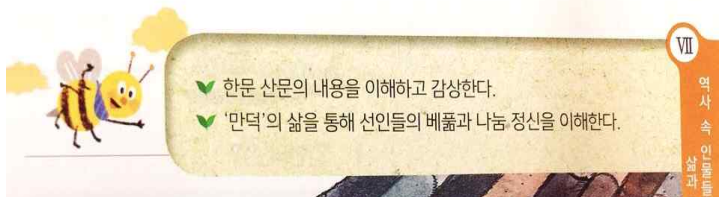
한문교과서의 학습목표 중 인성교육에 관한 목표를 나타내고 있는 학습목표는 두 가지 진술 방식이 있었다. 첫 번째는, 교육과정 내용을 본떠 학습목표를 구성한 경우이고 두 번째는, 소단원의 본문내용에 맞게 학습목표 안에 인성덕목을 제시한 경우이다.

다음은 교육과정 내용을 본떠 학습목표를 구성한 경우의 교과서 예시이다.



첫 번째 사진은 ㉔교과서의 학습목표로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가 인성교육에 관한 학습목표에 해당된다. 두 번째 사진은 ㉕교과서로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여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를 학습목표로 하였다.

다음은 두 번째로 소단원의 본문내용에 맞게 학습목표 안에 인성덕목을 제시한 경우의 교과서 예시이다.



위 사진은 ㉔교과서의 학습목표이고 아래 사진은 ㉕교과서 학습목표이다. 소단원의

본문 내용에 맞게 학습목표에 ‘배움과 나눔 정신’, ‘우애’라는 인성덕목을 확실히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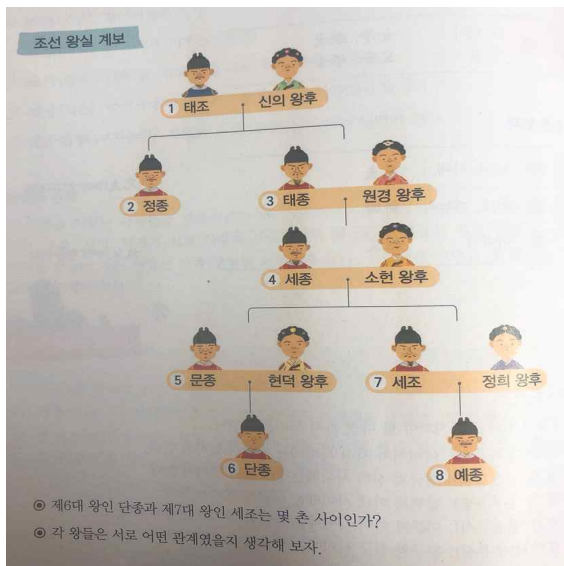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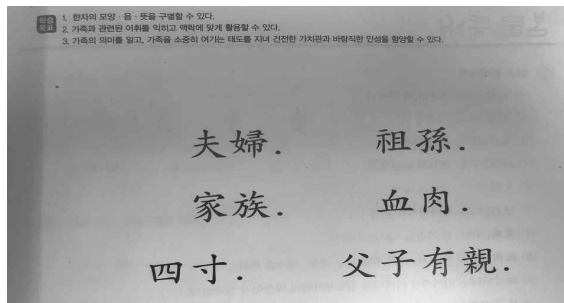
첫 번째 경우와 같이 교육과정의 ‘한문과 인성’ 성취기준⁶⁹⁾을 그대로 반복하여 학습목표를 설정하면 학습목표를 통해 해당 글감의 인성덕목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교육과정 내용을 반복하여 만든 학습목표이기 때문에 인성교육에 해당되는 학습목표의 형태가 출판사나 단원에 상관없이 거의 비슷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학습목표는 가시적인 학습량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학습자가 느끼는 학습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으면 수업에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습자는 글감에서 직접 인성덕목을 찾아 학습하게 되므로 인성덕목을 주입식으로 학습하는 것보다 능동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습목표는 학습자에게 어떠한 인성덕목을 배우게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를 줄 수 없고, 학습목표가 길고 장황한 경우가 많다는 단점이 있다.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 학습자들은 수업에서 인성덕목을 추출하여 칠판이나 교과서에 따로 제시하지 않으면 어떠한 인성덕목을 학습해야 하는지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교사의 주의가 필요하다.

두 번째 경우와 같이 매 소단원의 글감에 따라 학습목표 안에 인성덕목을 넣어 제시한 학습목표는 매 단원마다 다른 형태를 띠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학습목표의 가장 큰 장점은 학습자들이 어떠한 인성덕목을 학습하게 될 것인지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습목표를 읽는 것은 해당 학습이 어떠한 주제와 내용으로 진행되게 될지 예상하게 하고 수업을 준비할 수 있게 한다. 학습목표에 인성덕목이 포함되어 있으면 학습자들은 수업의 내용을 예측하여 준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습목표는 학습목표 자체에서 인성덕목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목표에 제시된 인성덕목 이외의 인성덕목을 발견하기 힘들게 한다는 단점이 있다. 하나의 글감에서 꼭 한두 가지의 인성덕목만을 학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글감에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의 인성덕목을 중복으로 학습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학습목표에서 인성덕목을 정해서 제시해 준다면 학습자가 글감을 통해 다양한 인성덕목을 떠올리고 학습할 여지를 빼앗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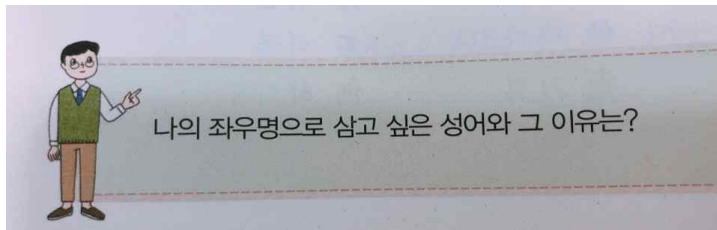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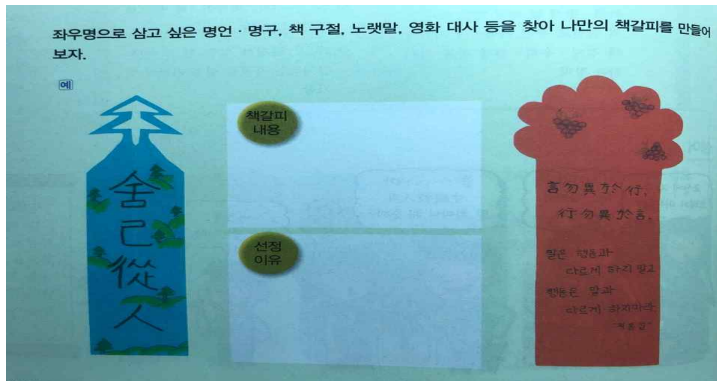
69)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지혜, 사상 등을 이해하고, 현재적 의미에서 가치가 있는 것을 내면화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교육부 고시, 「한문과 교육과정」, 제 2015-74호 [별책 17] 16p.

2) 학습목표 · 본문 · 학습활동과의 연계

교실수업은 수업의 시작에서 학습목표를 알리고, 정해진 학습목표에 따라 본문을 학습한 다음, 학습한 본문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내면화하기 위해 학습활동을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때 학습목표와 본문의 내용, 학습활동이 통일되어야 학습자들은 혼돈 없이 체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 학습목표와 본문의 내용, 학습활동이 연결되지 않거나, 학습목표를 충족시킬 만한 학습활동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효과적인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교과서 분석결과 학습목표를 충족시켜 줄만한 학습활동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그림은 ㉔교과서의 모습이다. 인성에 관한 학습목표로 ‘가족의 의미를 알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지녀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다.’를 제시하였다. 본문에는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한자어가 담겨있다. 학습목표대로라면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무엇인지, 바람직한 가족관계를 위하여 실천 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등의 활동이 제시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촌수를 계산하고, 각 왕들이 어떤 관계였는지 생각해보는 활동이 제시되어있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려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하는데 이 단원에서는 지식교육에 치우친 활동이 제시되어 아쉬움이 있다.



위 사진은 ㉔교과서의 학습활동이며, 아래는 ㉕교과서의 학습활동이다. 거의 대부분의 교과서에 ‘자기수양’의 덕목을 학습할 때 좌우명으로 삼고 싶은 성어·명언·명구 등을 고르고 그것을 활용하여 책갈피를 만들어보거나 엽서를 만들어 보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자는 좌우명을 적어보는데서 학습활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좌우명을 실제로 실천해볼 수 있는 실천적인 교수학습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좌우명의 내용을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지 확인표를 만들어 기간을 정하고, 스스로 평가해보는 과정이 추가되었을 때 ‘자기수양’의 덕목이 수동적인 학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실제 삶에 적용될 것이다. 다음은 연구자가 제시하는 좌우명 실천 확인표의 예시이다.

□ 실천 확인표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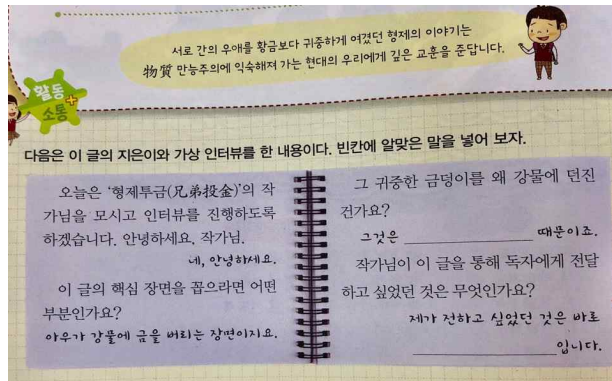
作心三日로 끝나지 않아요!									
나의 좌우명 :									
1日次		2日次		3日次		4日次		5日次	
☺	☹	☺	☹	☺	☹	☺	☹	☺	☹
反省		反省		反省		反省		反省	

3) 비판적 감상을 제공하는 학습활동의 부족

그간의 한문교과서에서 제공하는 학습활동은 이론적인 학습활동에 치우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학습활동은 기존의 인성교육이 실패한 이유를 보여준다. 이론적이며 실천적이지 못한 인성교육으로부터 탈피하여 학생들이 직접 실천과 반성,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학습활동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문교과서에 제시된 글감은 쓰인지 오래된 것들이라 다소 시의성이 맞지 않고 현재 우리의 삶에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 이러한 경우 주입식으로 구시대적 감상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당시의 전통을 이해하되 지금 시대에 맞게 비판적인 자세로 감상할 필요가 있다. 즉 濫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創新하는 학습을 할 때, 비판적인 안목을 기르면서 인성도 함양할 수 있다.

■ 예시 i : ‘兄弟投金’이라는 성어의 배경이 된 설화는 ‘형제간의 우애’라는 덕목을 학습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글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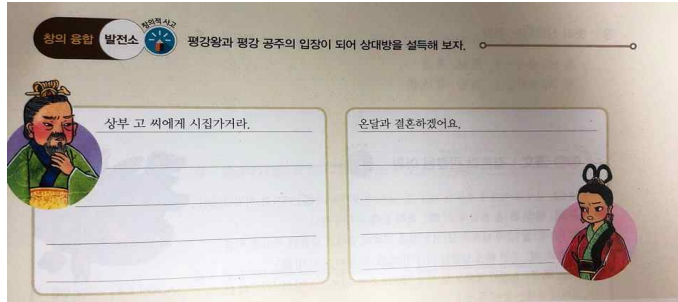
사진은 ㉔교과서의 학습활동이다. 이 학습활동은 물욕을 잠재우고 우애를 지키기 위해 금덩이를 강물에 던지는 핵심장면으로 꼽는다. 그런데 지금의 학습자들이 이 이야기를 읽는다면 우애를 지키기 위한 더 좋은 방법을 이야기하며 바보 같은 형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설화를 비판적으로 감상한다면 ‘우애를 지키기 위해 금덩이를 강물에 던진 것은 옳은 행동이었을까?’라는 논점을 끄집어 낼 수 있다. 애초에 길에 떨어져있던 금덩이를 마음대로 주웠다가 강에 던지는 행위는 범죄로 볼 수 있다. 또한 금덩이를 버리지 않고 그것을 팔아서 필요한 곳에 사용한다면 형제간의 우애가 더 좋아질 수도 있는 일이다. 설화의 상황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나는 금덩이를 강물에 던질 것인지 말 것인지 생각해보고 이 물음에 답하면서 ‘형제간의 우애를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나,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여 발표해 보는 학습활동을 할 수 있다.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실제로 실천해본다면 우애를 키울 수 있는 구체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

■ 예시ii : 평강공주가 아버지가 해 오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 온달과 결혼한다는 설화는 ‘정직’을 강조하는 글감이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匹夫 猶不欲食言 況至尊乎’⁷⁰⁾라고 하여 한 번 말한 것은 지키려하는 평강공주의 소신을 높이 사고 있다. 그러나 연구자는 이 글감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정직’뿐만이 아니라 평강공주의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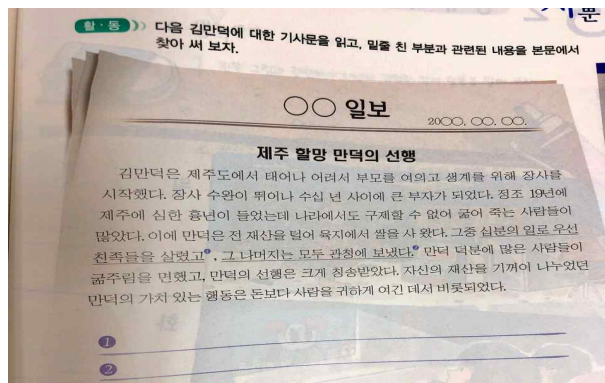
70) 교과서 마다 토가 다르게 달려있어 생략했다.

성'에도 초점을 맞춰야하다고 생각한다. 평강공주는 스스로 자신의 남편감을 선택하고 온달을 설득해 결혼을 했기 때문이다. 당대에는 파격적이라 할 수 있는 선택을 하며 자신이 주체적으로 선택한 삶을 산 평강공주의 '주체성'을 학습 덕목으로 추가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글감을 통해 '부모님의 말씀은 무조건 따라야하는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라는 활동을 한다면 학습자들이 '주체적인 삶'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고등학교 비상 교과서는 평강왕과 평강공주의 입장이 되어 상대방을 설득해 보자는 학습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학습활동은 평강공주 설화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자신의 가치관을 점검하고 질문과 답변 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은 비판적인 안목을 기르고 인성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 예시iii : 김만덕이 기근에 빠진 제주도민을 전 재산을 기부하여 구제한 일화는 '선행', '나눔', '배려'와 '협동' 등의 덕목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글감이다.



그러나 ㉞교과서는 본문 내용을 정리해보는 수준의 학습활동만을 제시하고 있다. 김만덕의 재산은 매점매석을 통해 축적한 것이었다. 朴趾源(1737-1805)이 「許生」에서 매점매석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듯이, 만덕 당대에도 매점매석은 그리 정당한 행위가 아니었다.⁷¹⁾ 김만덕의 나눔 정신과 재산을 베푸는 행위로 많은 사람들이 구제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김만덕의 행위가 정당하고 윤리적인 것만은 아니었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한 사람의 선한 행위가 그 사람의 행적과 평가를 통해 양면성을 띠게 되는 일은 지금의 우리시대에서도 찾을 수 있다. 지식인들을 배출할 수 있는 대학을 설립하였지만 친일행적이 드러난 대학 총장의 경우나, 대학에 거액을 기부해 강의실을 짓는 등의 사회 환원을 했으나 부적절한 행위를 했음이 드러난 인물들이 그러하다. 김만덕과 지금의 뉴스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인물들의 사례를 조사하여 비교해보고 해당인물에게 어떠한 평가를 내려야 할지 토론해 보는 활동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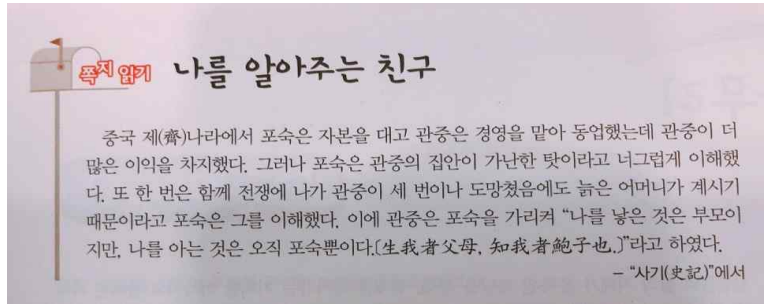
인성은 단순히 교훈적인 글감을 읽고 해석하는 강독만으로 인성덕목을 완전하게 배웠다고 말할 수 없으며, 더더욱 인성이 함양되었다고 自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학습한 덕목에 대해 깊게 생각하고 실제로 실천할 수 있어야만 인성이 함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존의 이론학습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실제 반성과 성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실천영역에 부합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학습과정에서 주어진 글감을 비판적으로 감상하고 이를 실천적인 학습활동으로 옮겨야만, 미래지향적이며 진취적인 인성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 보충읽기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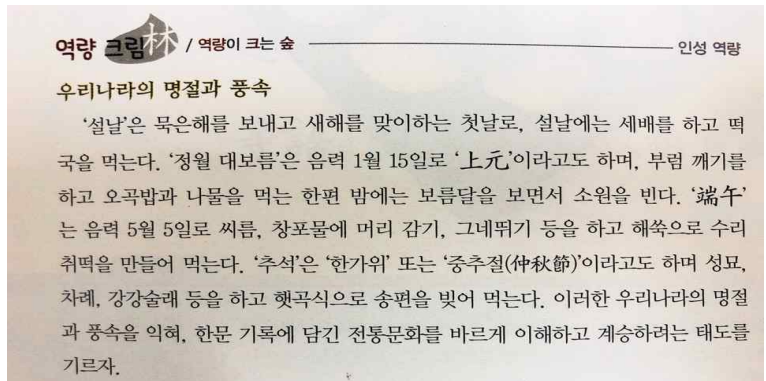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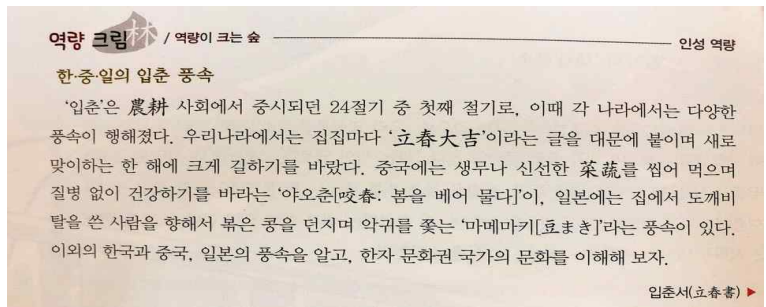
한문교과서는 매 소단원의 마지막에 보충 읽기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글감을 추가로 제시하여 교사가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보통 ‘창의적 사고능력’과 ‘인성역량’에 관한 글감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교과서 분석 결과 보충읽기 자료가 소단원의 본문과 내용이 동떨어져있는 경우도 있으며, ‘인성역량’을 기를 수 있는 자료라고 표시하고서 실제로는 인성역량을 기르기

71) 안세현, 「한문교육에서의 인성교육」, 『한문교육연구』, 한국한문교육학회 49집, 2017, p.329

에 적합하지 않은 자료를 실은 경우도 찾을 수 있었다.



사진은 ㉔교과서의 모습이다. 인성에 관한 학습목표로 ‘선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바람직한 생활 태도를 기를 수 있다.’가 제시되었고 본문으로는 우정과 관련한 사자성어인 ‘伯牙絕絃’, ‘金石之契’, ‘肝膽相照’, ‘莫逆之友’와 ‘二人同心 其利斷金 同心之言 其臭如蘭’ 등의 문장이 소개되었다. 친구간의 우정을 다룬 내용이 본문 글감으로 제시되었는데 보충읽기 자료로 관중과 포숙의 일화가 제시되었으므로 본문 내용과 보충읽기 자료가 관련이 있으며 보충 읽기 자료를 통해 본문의 내용을 심화하여 학습할 수 있는 좋은 예시이다. 그러나 실제 인성교육에 관한 직접적 자료가 아닌 것도 있다.



사진은 ㉔교과서의 모습이다.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보충읽기 자료로 한·중·일의 입춘풍속, 우리나라의 명절과 풍속이 소개 되었다. 본문의 내용이 설날과 추석에 관한 내용이었으므로 본문 내용과 연계가 되는 보충읽기 자료라고 하겠다. 그러나 인성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내용인지는 의문이 든다. 교과서는 漢文科의 핵심역량을 골고루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보충자료도 인성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자료에 들어간다면 실제적으로 교과서가 제시하는 인성역량 관련 글감이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4. 漢文科에서의 인성교육을 위한 ‘덕목’ 창출

한문교과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성덕목은 ‘배려’, ‘정직’, ‘자기수양’, ‘근검’ 등이다. 이러한 덕목들은 삶에 꼭 필요한 중요한 요소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평소에 당연하게 여기기 쉬운 것들이라 이러한 덕목들만을 강조한다면 학습자들은 인성교육을 지루하게 생각할 수 있다. 오랜 시간 도덕적 당위성을 가져온 인성덕목을 학습하는 것은 당연하고 여기에 지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인성덕목을 추가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변화하는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여 국제 교류에 기여하는 인재를 키우며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 또한 漢文科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이 절에서는 漢文科의 정체성을 살리면서도 현실을 반영하며 미래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인성덕목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Ⅱ장의 연구를 통해 漢文科는 교육정책이나 道德科의 교육과정에 비해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덕목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Ⅲ장의 앞선 분석에서는 한문교과서에 실린 덕목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고 더욱 다양하고 새로운 인성덕목의 필요성을 느꼈다. 연구자는 漢文科가 그간의 보편적이고 당위적인 인성교육, 전통적 주제의 인성교육에서 벗어나, 한문고전을 전거로 하되 현실적이며 현 시대적 상황에 시의 적절한, 실효성 있는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연구자는 漢文科가 할 수 있는 인성교육의 내용체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漢文科는 그간 교육과정에서 인성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 다음의 표는 기존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으로 연구자가 나름대로 고민하여 새롭게 창출해낸 것이다.

〈표21〉 : 새롭게 제시하는 漢文科 인성교육 내용체계

순	인성영역	핵심가치	내용요소(인성덕목)
			기능
1	자신과의 관계	자기수양	성실, 반성, 근검, 선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생각해보기 ○ 주체적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기르기 ○ 도덕적인 자세 갖기
2	타인과의 관계	배려	仁, 효, 정직, 배려, 소통, 우정·우애, 리더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의 입장 이해하고 배려하기 ○ 공감 및 경청하여 소통하기 ○ 바람직한 대인관계 형성하기
3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협동	베픔, 義, 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의식 갖기 ○ 사회 정의에 대해 생각해보기 ○ 다양성에 반응하고 사회적 편견에 맞서기
4	자연과의 관계	책임	환경보전, 생명존중, 자연관-인간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 ○ 자연·생명 친화적 관점 갖기 ○ 자연의 법칙을 통해 인간사회의 법칙 알기

먼저 인성영역을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로 나누었다.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단원별 덕목을 살펴보니 대부분의 교과서가 나 자신과의 관계 즉, 자기수양에 관한 덕목들로부터 →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을 살핀 덕목 → 사회적인 관계성, 즉 집단이나 공동체와의 관계성을 살피는 덕목으로

확장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순서대로 인성영역을 제시하고, 연구자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자연과 인간과의 조화를 생각하는 자연과의 관계도 영역에 포함하였다.

인성영역을 설정한 다음 각 영역의 대표 인성덕목인 ‘핵심가치’를 두었다. 여기에서 각 영역별로 네 가지의 ‘핵심가치’와 그에 따른 17가지 인성덕목을 제시하였다. ‘자신과의 관계’ 영역에서는 한문교과서에서 가장 많은 글감을 차지하고 있는 ‘자기수양’을 핵심가치로 삼고 ①성실, ②반성, ③근검, ④선행 등을 내용요소로 하였다.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배려’를 필두로 하여 한문교과서에서 찾을 수 있었던 인성 덕목 중 타인과의 관계성을 학습할 수 있는 ⑤仁, ⑥효, ⑦정직, ⑧배려, ⑨소통, ⑩우정·우애, ⑪리더십 등을 포함하였다. ‘사회·공동체와의 관계’에는 ‘협동’을 핵심가치로 하여 ⑫배품, ⑬義, ⑭평등 등의 덕목을 설정하였다. ‘자연과의 관계’에서는 ‘책임’을 핵심가치로 하고 ⑮환경보전, ⑯생명존중, ⑰자연관-인간관을 내용요소로 하였다. ‘자신과의 관계’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제시하는 인성덕목은 그간의 한문교과가 제시하던 전통적인 인성덕목을 바탕으로 하였다면,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에서는 연구자가 새롭게 제시하는 인성덕목인 ‘평등’, ‘환경보전’, ‘생명존중’, ‘자연관-인간관’을 포함시켰다. 한문교과서의 글감을 분석하고 영역별로 구분하였을 때 ‘사회·공동체와의 관계’와 ‘자연과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글감이 부족하였는데 연구자가 새롭게 제시하는 인성덕목을 교과서에 추가하게 된다면 여러 영역에서 골고루 인성교육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기능’에는 각 영역별로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연구자가 새로운 인성덕목으로 제시하는 것은 ‘평등’, ‘환경보전’, ‘생명존중’, ‘자연관-인간관’이다. 그간의 한문교과서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덕목이지만 꼭 학습해야할 인성덕목이라고 생각한다.

2016년 5월 강남 한복판에서 문지마 살인이 있었다. 범인이 “여성을 기다렸다가 범행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성 안전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여성 안전과 여성 혐오에 대한 논의도 확대되었다. 2018년 1월에는 현직 검사가 검찰 내의 성폭력 실상을 고발하면서 ‘미투 운동’⁷²⁾이 촉발되었다. 이 문제

72) 미투 운동(Me Too movement, #MeToo)은 미국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로 퍼진 캠페인으로, 여성혐오, 성폭행 등의 경험을 공개하여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의 보편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사회운동이다.

가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학교에서부터 페미니즘 교육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페미니즘 교육과 보편적 인권 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초중고 인권교육 실태조사’를 연내 재개해 성평등 교육을 포함한 ‘통합 인권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⁷³⁾ 연구자 역시 학교에서부터 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교과서 집필기준과 검정기준에 양성평등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⁷⁴⁾이다. 글에는 그 글이 쓰인 시대와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한자와 한문이 쓰였던 시기의 특성상 한자와 한문에는 남성위주의 세계관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젠더감수성에 민감하지 못한 내용의 문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자와 한문이 가진 약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비판할 점은 비판하며 교육한다면 한문을 통해서도 충분히 ‘평등’교육이 가능하다. ‘남자라서’, ‘여자라서’ 등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고 올바른 성가치관을 형성하는데 漢文科가 기여할 수 있다.

지금울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의 날씨와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있다. 이상기후로 꽃이 만개한 후에도 갑자기 눈이 내리기도하고 봄이 되어야 할 날씨에 폭설이 내리기도 한다. 체육시간을 운동장에서 보내지 못하고 교실수업으로 대체하거나 외부 공기가 유입되지 않게 문을 꼭 닫고 강당에서 수업을 하는 것도 일상이 되어 버렸다. 환경문제는 우리의 삶과 건강에서 떼어낼 수 없는 문제가 된 것이다.

환경을 보존하는 것과 편리를 위해 개발을 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도 커졌다. 한 사례를 들자면, 평창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 스키장과 호텔이 필요해 가리왕산을 훼손한 일이 있다. 가리왕산은 조선시대부터 왕실 보호구역으로 500년 이상 엄격하게 관리가 되었고 1996년에는 산림청에 의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국가적 보호를 받던 곳이었다. 그러나 올림픽이 끝난 지금은 산림이 복원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면서 지역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

73) 박광수, 「‘페미니즘 교육의무화’ 청원에 靑 “통합 인권교육 토대 마련”」, 중앙일보, 2018.02.27. 입력. (<http://news.joins.com/article/22400262>)

74) 위 신문에서 윤영찬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의 인터뷰 인용.

나 산의 생태계가 복구되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⁷⁵⁾

한문고전에는 자연을 예찬하고 보전하고자 한 선인들의 사상이 담겨있는 자료가 많다. 예를 들어 ‘소식’의 글을 살펴보기로 하자.

또한 대저 하늘과 땅 사이에 물건은 각각 주인이 있으니 진실로 내 소유가 아니라면 비록 털 오라기 하나라도 가질 수 없다. 오직 강 위에 부는 맑은 바람과 산 사이의 맑은 달은 귀로 그것을 얻어 소리가 되고 눈으로 그것을 만나 빛을 이루니 그것을 가져도 금함이 없고, 그것을 써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조물주의 다함없는 창고요, 나와 그대가 함께 즐기는 것이다. 76)”

이것은 ‘소식’의 문장은 자연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니 자연을 누려보자는 의미로 지어진 문장이다. 이 문장은 주인이 없다고 하여 자연을 훼손한다면 그 누구도 누릴 수 없으며 정해진 주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노력하여 지켜야 한다고 해석하면 ‘환경보전’의 덕목도 학습할 수 있다. ‘환경보전’도 하나의 인성덕목으로 삼아 선인들은 자연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았는지를 학습하면서 우리는 자연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한다.

‘펫코노미(Pet-Economy)’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伴侶犬, 伴侶貓 등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고 있다. 예전에는 ‘愛玩犬’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었는데, 지금은 ‘반려견’이란 명칭이 보편적이다. 달라진 명칭만큼 동물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 반려동물이 등장하는 TV프로그램이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고, 공원에서는 동물을 산책시키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동물학대가 계속되고, 반려동물의 인기만큼 유기견, 유기묘도 늘었다. 유기견이 사람을 무는 일도 발생하고, 유기묘 밥을 챙겨주는 일로 시비가 걸리는 일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달라진 삶의 모습처럼 인간을 비롯한 동물의 생명을 대하는 데까지 올바른 가치관을 기르는 교육이 학교에서부터 되어야 한다.

75) 하상윤기자, 「겨울 축제」가 활귀고 간 상처...‘운무’라도 보듬고 싶었나보다, 세계일보, 2018.05.06. 에서 인용 요약. (<http://www.segye.com/newsView/20180503005264>)

76) 蘇軾의 赤壁賦를 발췌한 것으로 ©교과서에도 수록된 문장이다. (且夫天地之間 物各有主 苟非吾之所有 雖一毫而莫取 惟江上之清風 與山間之明月 耳得之而爲聲 目遇之而成色 取之無禁 用之不竭 是造物者之無盡藏也 而吾與子之所共適)

그간의 생명존중 교육은 자살예방 교육을 통한 자살방지 및 생명의 가치와 존엄성 의식을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그러나 이제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 생명존중 뿐만 아니라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존중’으로 내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문 자료 중 〈人物性同異論〉, 洪大容이 ‘以人視物하면 人貴而物賤하고, 以物視人하면 物貴而人賤이라. 自天而視之면 人與物均也라.’라고 한 〈鑿山問答〉⁷⁷⁾ 등을 전거로 ‘생명존중’을 漢文科의 인성 덕목으로 끌어들이 수 있다.

우리 조상들은 자연의 변하지 않는 법칙을 통해 인간 사회의 법칙을 찾고자 하였다. 자연의 모습을 통해 인간사회를 바라보고, 선인들이 가지고 있던 자연관과 인간관을 이해하되 지금의 시대에 맞게 현대적으로 해석해보는 새로운 방법의 인성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上善若水 水善利萬物而不爭 處衆人之所惡 故幾於道’⁷⁸⁾ 라는 문장을 학습하고 물은 어떤 속성을 가졌는지 살펴본다. 이 문장에서 물은 만물을 잘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처한다. 물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에 ‘源泉 混婚 不舎晝夜 盈科而後進 方乎四海 有本者如是’⁷⁹⁾라는 맹자의 말을 보충 자료로 제시할 수도 있다. 그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을 메우며 점진하는 물의 특성을 보고 자연의 모습에 인간 삶을 투영해 볼 수 있다. 선인들의 자연관을 통해 인간관을 살펴보는 ‘자연관-인간관’도 한문교과에서 할 수 있는 인성교육 덕목이 될 수 있다.

학교 인성교육이 교과서를 통해 인성덕목을 주입식으로 ‘학습’하고 만다면 그것은 성공한 인성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학습한 인성덕목은 현실 삶에 적용되어 우리의에게 영향을 미쳐야한다. 그래야만 ‘현대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⁸⁰⁾’를 해결 할 수 있다.

77) ㉞교과서 수록 글감. 사람의 눈으로 만물을 본다면 사람이 귀하고 만물은 천하다. 만물의 눈으로 사람을 본다면 만물이 귀하고 사람이 천하다. 그러나 하늘의 눈으로 본다면 사람과 만물은 동등하다.

78) ㉞, ㉟, ㊱교과서 수록 글감으로 『道徳經』이 출전이다. 다음은 ㉞교과서의 해석이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으니, 물은 만물을 잘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으며,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머무른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79) 『孟子』 「離婁 下」

80) 교육부 고시, 「한문과 교육과정」, 제 2015-74호 [별책 17], 16p.

위에서 새롭게 제시한 덕목들은 漢文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나 심도 있게 논의되어 왔던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매일 뉴스 속에서 보고 있고, 실제로 체감하는 일이면서 꼭 필요한 덕목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더욱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대의 문제들에 대해 깊게 고민하여, 지금까지는 없었던 인성교육이지만 앞으로 있어야 할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

이번 장에서는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집필된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인성교육 글감이 가진 문제이다. 한문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인성덕목이 다양하지 않고, 인기 있는 인성 덕목과 그렇지 않은 덕목의 출현 빈도차가 컸다. 현시대를 반영한 인성덕목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중·고등학교 교과서가 동일한 글감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둘째, 내용 장르 간 인성교육의 비중 차가 크다는 것이다. 인성교육 글감은 주로 단문이나 산문, 경서에서 많이 다루고 있었지만 한자나 단어 파트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아 교과서의 전반부에서는 인성교육에 관한 글감이 부족하였다.

셋째, 실천적이고 비판적인 학습활동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으며, 인성역량과 관련이 없는 보충읽기 자료가 제시된 점이다. 인성교육은 학습자가 인성덕목을 체감하고 체득할 때 학습의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교과서가 제공하는 학습활동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교과서가 실제로는 인성교육에 관한 글감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4절에서 새로운 인성덕목을 제시하였다. 한자나 단어파트에서 시도할 수 있는 인성교육 방법으로 ‘나만의 자전’을 제시하였다. 실천적인 학습활동을 할 수 있게 좌우명을 적어 본 후 실천 확인표를 작성해보는 방법을 제시하고, 비판적인 감상의 예시를 들었다.

다음 교육과정의 교과서가 만들어질 때는 조금 더 다양한 덕목과 글감이 수록되기를 희망한다. 한자나 한시 파트에서도 인성교육 요소를 늘린다면 학습자가 교과 시간 내내 인성덕목에 대한 의식을 하고 충분히 내면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실천적이고 비판적인 학습활동이 제시되지 못한 문제, 인성역량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보충 읽

기 자료의 부재 문제는 각 소단원의 개성을 살리며 더욱 다양한 글감이 개발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다양한 장르에서 시도 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과, 한문교과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타 교과와 융합할 수 있는 인성교육 교수법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IV. 漢文科에서의 인성교육을 위한 교수법 제언

Ⅲ장의 분석결과 인성교육의 학습 글감은 장르별 편차가 크고, 비판적이며 다양한 학습활동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으며, 현시대를 반영하는 인성덕목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이에 Ⅲ장 4절에서는 漢文科 인성교육 내용체계를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IV장에서는 그 내용체계에서 제시한 인성덕목인 17가지 내용요소⁸¹⁾에 대한 교수법을 제언하고자 한다. Ⅲ장의 분석에서 부족하다고 느꼈던 한자, 한시 파트와 연계하여 교수법을 개발하고, 비판적인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時宜性和 時中之道를 갖춘 인성교육법을 찾으며, 他교과와의 융합수업을 통한 다양한 인성교육 방법을 제언하겠다. 이를 통해 한문교육에서의 인성교육이 그간의 主知主義 수업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시키는 동시에 비판적이며 창의적인 사고력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교수법을 연구하였다.

1. ‘字’의 음·훈·형태소를 활용한 ‘평등’덕목 교수법

Ⅲ장에서 학습요소별로 글감을 분석한 결과 漢字를 활용한 인성교육 글감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漢字는 글자로서의 기능도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漢字를 사용해온 사람들에 의해 축적되어 온 ‘문화적 가치’까지 담보하고 있는 문자이다. 한자는 대표적인 표의문자인데, 표의문자는 그 글자의 발전과 사용과정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시대적 배경·문화적 습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漢字는 이미 남성중심의 사회에 진입한 뒤에 발전해왔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원시시대에 비해 저하되고, 남성이 여성을 경시하는 의식이 한자의 생산 중에 필연적으로 반영되었다. 그 과정에서 남성이 여성을 경시하는 의식을 드러낸 글자가 생산되었다. 『說文解字』의 ‘女部’에는 모두 238자가 수록되어 있는데, ‘女’字는 전체의 2.5%

81) ①성실, ②반성, ③근검, ④선행, ⑤仁, ⑥효, ⑦정직, ⑧배려, ⑨소통, ⑩우정·우애, ⑪리더십, ⑫베움, ⑬義, ⑭평등, ⑮환경보전, ⑯생명존중, ⑰자연관-인간관

를 차지하고 있는 비교적 중요한 부수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女部’에 속한 글자 중에는 좋은 뜻을 나타내는 글자보다 나쁜 뜻을 상징하는 글자가 훨씬 많다.⁸²⁾

다음은 <중·고등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에서 ‘女’가 포함되는 글자와 ‘子’나 ‘男’이 포함되는 한자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女’와 ‘子’가 부수가 아니더라도 포함되어 있는 한자는 모두 ‘가나다’순으로 나열했으며 중학교 한문 교육용 한자는 굵은 글자로 표시하였다.

〈표22〉 : <중·고등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에서
성별이 드러난 한자

‘女’가 포함되는 글자 38자
姦(간사할 간), 姑(시아미 고), 娘(아가씨 낭), 女(여자 여) , 怒(성낼 노), 努(힘쓸 노), 奴(종 노), 妄(망령될 망), 妹(누이 매) , 媒(중매 매), 妙(묘할 묘) , 妨(방해할 방), 婦(부인 부) , 妃(왕비 비), 婢(여종 비), 愆(용서할 서), 姓(성씨 성), 始(비로소 시) , 安(편안할 안), 案(책상 안), 如(같을 여), 汝(너 여) , 宴(잔치 연), 媿(즐거워할 오), 要(구할 요), 腰(허리 요), 委(맡길 위), 姻(혼인 인), 姊(누이 자) , 姿(맵시 자), 接(접할 접), 姪(조카 질), 妻(아내 처) , 妾(첩 첩), 妥(온당할 타), 嫌(싫어할 혐), 好(좋을 호) , 婚(혼인 혼),
‘子’나 ‘男’이 포함되는 한자 14자 ⁸³⁾
季(끝 계), 孤(외로울 고) 孔(구멍 공), 男(남자 남), 孫(손자 손), 勇(날쌔 울), 遊(놀 유), 乳(젖 유), 字(글자 자), 子(아들 자), 存(있을 존), 學(배울 학), 享(누릴 향), 好(좋을 호) , 孝(효도 효), 厚(두터울 후)

‘女’에 속한 글자는 여성성과 관련 있는 글자에 쓰인다. 여기에 속한 글자들을 살펴 보면 한문의 세계관이 여성과 여성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한문교과서에 등장하는 ‘女’가 포함되는 글자와 ‘子’나 ‘男’이 포함되는 한자를 비교해보면

82) 賀友齡, 「漢字 形體에 반영된 여성의 사회지위의 浮沈」, 『한자한문교육』, 14집, 2005. 수정 요약

83) 勇자는 보기에는 男자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원래는 甬에 力이 더해진 글자로 男자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표에 포함하지 않았다.

‘女’가 포함되는 글자는 부정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거나 성차별적 요소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子’가 포함되는 글자는 가치중립적인 뜻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표적으로 ‘安’자와 ‘字’자를 비교해보겠다.

‘安’은 집 안에 여자가 있는 모양이다. ‘宀’은 나지막한 집 모양을 본뜬 형태이다. 집 안에 여자가 있어야 자식을 낳아 대를 잇고, 제사 음식도 준비하고 두루두루 ‘편해진다’는 의식이 반영된 글자이다.⁸⁴⁾

‘字’자는 집(宀)에 남자아이(子)⁸⁵⁾가 있는 모습으로, 집 안에서 ‘아이를 낳다’, ‘아이를 낳아 기르다’가 본래의 뜻이다. ‘字’는 이후 아이를 낳아 자손을 불러나가듯 글자가 계속하여 생긴다는 의미에서 ‘글자’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⁸⁶⁾⁸⁷⁾

‘安’자와 ‘字’자는 집안에 있는 대상의 성별이 다를 뿐인데 전혀 다른 의미의 글자가 되었다. ‘安’은 집에 여성이 있어야 편안하다는 의미로 여성을 집안에 있어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보고, 여성의 역할을 집안일로 대표하고 있다. ‘字’는 남자아이를 낳아 기르며, 계속하여 아이를 낳아 자손을 불러나간다는 의미가 담겨있어 여성과 남성을 바라보는데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한문교과서』에 등장하는 위와 같은 한자 이외에도 남성위주의 세계관이 반영된 한자들이 많다. 妖(아리따울 요/괴이할 요), 媚(아름다울 미/아첨할 미), 奸(구할 간/간할 간), 佞(재주 있을 념/아첨할 념) 등의 한자는 원래 모두 아름답다는 뜻이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나쁜 뜻으로 변한 것이다. 이러한 글자들은 여성을 미의 대상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사악한 행위의 제공자로 인식⁸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습자들은 이미 만들어져 쓰고 있는 한자를 학습하게 될 수밖에 없으며, 사회의 합의 없이 당장 한자를 변형시켜 사용할 수는 없다. 교사는 성차별적 요소가 담긴 한자를 가르칠 때 이러한 한자가 만들어졌던 시대의 상황과 사회구조 배경을 충분히 설

84) 정춘수, 『한자 오디세이』, 부키, 2003, p. 78

85) 여기서의 子’는 두 팔과 머리카락이 난 아이의 모습을 형상화 한 것이다. 그러나 부계사회가 확립되면서 아버지의 성씨를 이어나가는 것은 아들이고, 딸은 다른 남자의 성씨를 이어주는 수단 정도로 인식되면서 아들만 진정한 자식이 되었고, 子는 남자아이만을 한정해서 의미하게 되었다.

86) 허영삼, 『연상 한자』, 예담, 2004, p.109 참고

87) 그래서 文字라고 할 때 文이 한자의 가장 기초되는 글자라고 한다면 字는 이 文이 두 개 이상 서로 합쳐져 새로이 만들어진 글자를 말한다.

88) 허영삼, 『연상 한자』, 예담, 2004, p.235 참고

명해야하고 학습자는 해당 한자가 성차별적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이해해야한다. 문제가 있는 한자의 사용을 지양하고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글자가 있다면 그 글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한다. 학습자들이 성차별적인 요소를 비판할 수 있으며 성역할 고정관념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느낀다면 학습한 ‘평등’의 덕목이 실천되어 삶에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자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 한자의 모양, 음, 뜻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쓰는 사람에 따라서 나라마다 지역마다 자연스럽게 변화했다. 중국에서는 기존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한자가 등장하기도 한다. 우리말도 시대가 변함에 따라 신조어가 계속하여 생겨나듯이 새로운 한자가 필요하다면 새롭게 만드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당장 사회에서 새로운 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학습자들과 한자의 짜임을 익히며 새로운 한자를 만들어보는 과정은 한자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할 수 있다.

다음은 한자의 짜임과 ‘평등’의 덕목을 함께 학습할 수 있는 교수-학습지도안을 구성한 것이다. 전 차시에서 한자의 특징과 한자의 3요소, 상형의 원리와 지사의 원리의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하였으며, 아래에 제시된 것은 2차시 수업의 지도안이다.

〈표23〉 : ‘字’를 활용한 수업 지도안

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학습 형태	학습 매체
	교사	학생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 전시학습 목습 ▶ 동기유발 - 뜻과 뜻이 더해져 새로운 뜻을 가진 글자들이 있는 경우를 제시하고, 다른 사례를 생각해보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고기=물고기 • 눈+사람=눈사람 ▶ 학습목표 확인 -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회의)를 알 수 있다. - 성차별적 요소를 구별해 낼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 전시 ■ 교사의 설명을 경청한다. ■ 뜻과 뜻이 더해져 새로운 뜻이 된 사례를 생각해보고 발표한다. - 방탄 + 소년단 = 방탄소년단 ■ 학습목표를 인지한다. 	6분	강의법, 문답법	교과서, PPT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문학습 - 문명이 발달하며 더 많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설명을 경청하며 회의의 원리를 이해한 	36분	강의법, 문답법	교과서, PPT,

	<p>한자가 필요하게 되었음. 이에 이미 만들어진 한자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한자를 만들게 되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원리 : 이미 만들어진 둘 이상의 한자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한자를 만들되, 그 한자가 지닌 뜻을 합쳐서 새로운 뜻을 나타내게 되는 한자의 형성 원리 - 회의의 원리로 만들어진 한자를 소개하며 어떤 의미를 가진 한자일지 말해 보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木 + 木 = 林 • 人 + 木 = 休 • 宀 + 女 = 安 • 田 + 力 = 男 - 한자가 생겨나게 된 시대적 특성상 安과, 男은 성역할 고정관념이 담겨있는 한자임을 설명한다. ▶ 활동학습 : 會意의 원리를 활용하여 ‘편안하다’는 뜻을 가진 새로운 한자 만들어 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安과 달리 차별적 요소가 없이 만들도록 지도한다. • 새로 만든 한자를 짝과 바꾸어 보며 회의의 원리를 활용하여 만든 한자인지, 차별적 요소가 있지 않은지 평가해보게 한다. • 학생들이 만든 한자를 발표하게 하고 피드백 한다. 	<p>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진 한자들이 어떤 한자와 어떤 한자가 더해져서 새로운 뜻을 나타내게 된 것인지, 어떤 뜻을 나타낼 것인지 생각해 보고 답한다. ■ 한자가 만들어진 시대의 특성상 성역할 고정관념이 담겨있는 한자가 있음을 안다. ■ 회의의 원리를 이용하여 새로운 한자를 만들어 본다. ■ 자신이 만든 한자를 짝과 바꾸어 보며 평가해 보고 발표해 본다. 		한자 구조 분석법	사진, 활동지
평가 및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인학습 - 형성평가 문제 풀고 질문하기 - 질문받기 ▶ 차시학습 예고 및 끝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성평가 문제를 풀고 아직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다. ■ 모르는 내용이 있을 시, 질문한다. ■ 인사 	3분	강의법 문답법	교과서, 활동지

2. 漢詩를 활용한 ‘修己’·‘家族愛’·‘自然觀’·‘人間觀’ 덕목 및 교수법

孔子는 『論語』에서 “詩를 배우면 마음을 감동시켜 흥기시킬 수 있으며, 사람의 잘 잘못을 고찰하여 알 수 있으며, 화합하여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으며, 원망이 있으되 성내는데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가까이 있는 부모를 섬길 수 있고, 멀리 있는 임금을 섬길 수 있으며, 새·짐승·풀·나무의 이름을 많이 알게 된다.”⁸⁹⁾ 라고 하였다. ‘漢詩’는 선인들의 정서가 응축되어 있는 장르이며 무궁무진한 소재와 주제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는 독자의 마음을 순화시키고, 안정된 정서를 견지하여 타인이게까지 전이시킬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한문고전의 한 장르이다.

현재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한시 영역을 다룰 때 시를 감상하고, 시의 형식을 학습하는 것에 초점을 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시 내용 안에 담겨 있는 소재와 주제에 따라 ‘인성덕목’의 추출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또한 한시에 투영된 작자의 관점을 통해 시를 감상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사회가 처한 문제점을 투영하여 바라본다면, 한시 영역에서도 인성교육의 가능성을 찾아보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시는 한시만이 가진 장르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시의 감상과 형식을 학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한시를 통하여 인성교육까지 소화해내야 한다면 학습량 부담이 증가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올 것이다. 그러나 교사의 재량에 따라 수업량을 적절히 조절한다면 감상부분에서 해당 인성덕목에 대하여 다 같이 고민해보거나 토론활동도 가능하리라 본다. 또는 다른 장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한시’를 보충자료로 활용하는 방법도 고안할 수 있겠다.⁹⁰⁾

예컨대 가족 간의 사랑을 다루는 성어나 단문을 학습한 후, 보충자료로 박지원의 〈燕巖憶先兄⁹¹⁾〉, 신사임당의 〈踰大關嶺望親庭〉 등의 한시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⁹²⁾ 공통된 주제이자 인성덕목을 해당 성어나 단문에 나오는 한자를 활용해 한자로 써보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학습을 병행한다면, 한시도 단순히 이

89) 『論語』: 子曰 小子 何莫學夫詩 詩 可以興 可以觀 可以群 可以怨 邇之事父 遠之事君 多識於鳥獸草木之名 / ①교과서 101페이지에 있는 보충자료에서 해석을 인용함.

90) 한시의 전문이나 또는 일부를 필요에 따라 해석과 감상을 첨부하며 학습부담을 줄일 수 있다.

91) 〈燕巖憶先兄〉 - 朴趾源, 我兄顏髮曾誰似 每憶先君看我兄 今日思兄何處見 自將巾袂映溪行

92) 〈踰大關嶺望親庭〉 - 申師任堂, 慈親鶴髮在臨瀛 身向長安獨去情 回首北坪時一望 白雲飛下暮山青.

론교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성교육이라는 실천영역으로서의 교육적 효과도 담보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한문교과에서 다루고 있는 인성덕목의 학습에 일부 도움이 될 만한 한시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1) 자기수양

偶成

少年易老學難成
一寸光陰不可輕
未覺池塘春草夢
階前梧葉已秋聲

朱熹⁹³⁾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려우니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아껴 가벼이 해서는 안 되네.
연못 가 봄풀에 얽힌 화사한 봄꿈 깨기도 전에,
뜰 앞 오동 나뭇잎은 이미 가을을 알리는구나.

雜詩

盛年不重來
一日難再晨
及時當勉勵
歲月不待人

陶淵明⁹⁴⁾

한창 때는 다시 돌아오지 않고
하루의 새벽은 돌아오기 어려우니
때를 맞추어 힘써야 함은
세월이 사람을 기다려 주지 않기 때문이다

위는 성실하게 배울 것을 권하는 내용의 시들이다. 이러한 시는 ‘자기수양’과 ‘성실’의 덕목을 다루는 글감 중 특히 학습과 관련 있는 글감을 다룰 때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學而時習之 不亦樂乎’, ‘開卷有益’, ‘手不釋卷’등의 문장과 성어를 학습할 때 보충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

2) 가족 간의 사랑

93) 전관수, 『한시작가작품사전』, 국학자료원, 2007에서 해석 인용. 송나라의 大 儒學者로서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자(朱子)의 《주문공문집(朱文公文集)》 권학문(勸學文)에 나오는 시의 첫 구절이다. 학문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학문을 열심히 익히라는 권학의 시구로서 배움에도 때가 있으니 젊은 시절에 부지런히 공부하라는 뜻을 담고 있다. 陶淵明의 아래의 시와 함께 힘써 배울 것을 권장하는 유명한 구절이다.

94) 기획집단 MOIM, 『고사성어랑 일촌맺기』, 서해문집, 2010에서 해석 인용.

寄長兒赴燕行中 徐令壽閣⁹⁵⁾

送汝向何處	떠나가는 너는 어느 곳을 향하는가?
燕雲三千里	북경 삼천리 먼 길이겠지
征鞭去珍重	가는 걸음 부디 몸조심 잘만한다면
何用戀兒子	무엇 때문에 너를 걱정하라!

王事皆有期	나라 일은 모두 때가 있는 것
勿爲戀家鄉	고향 그리워 말거라
令聞日以彰	날마다 훌륭한 소문 자자하게 들리면
勝似在我傍	내 곁에 함께 있는 것 보단 낫지

涼風忽已至	찬 바람 홀연히 불어오니
遊子衣無寒	나그네 신세인 네 옷은 차지 않은지?
念此勞我懷	이 곳 애타는 어미 마음 생각하고
種種報平安	자주 평안타는 안부 좀 전해주렴

燕巖憶先兄 朴趾源⁹⁶⁾

我兄顏髮曾誰似	우리 형님 얼굴 수염 누구를 닮았던가?
每憶先君看我兄	돌아가신 아버님 그리울 때마다 우리 형님 쳐다봤지
今日思兄何處見	이제 형님 그리운데 어디에서 볼까?
自將巾袂映溪行	스스로 두건 쓰고 도포 입고 가서 냇물에 비친 나를 보아야겠네

위의 시는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아래의 시는 돌아가신 아버지와 형을 그리워하는 동생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가족 간의 사랑을 노래한 시로 관련 단어나 성어를 학습할 때 보충 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

95) ㉔교과서에 세 번째 수가 수록되어 있다. 이 시는 다섯 편의 연작시로 자식을 향한 母情을 치밀한 짜임새로 구성하면서도 영수함의 정신세계를 내보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가족 간의 사랑’이라는 덕목을 더욱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둘째, 셋째, 넷째 수를 실었다. 둘째 수에서는 짐작할 수 없을 만큼 먼 곳으로 떠나는 자식을 생각하면서도 걸음으로 드러나는 슬픔을 억제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절제는 슬픔을 더욱 확대시킨다. 셋째 수에서는 자식의 장래를 염려하여 간곡히 훈계하는 모습이 보인다. 나라에 대한 충성이 곧 효도라는 유교의 보편적 진리를 인식시키고 있는데, 조선조 사대부가 여성들의 정체의를 발견할 수 있다. 넷째 수에서는 추위지는 날씨에 앞서 절제한 감정을 드러낸다. 떠나는 자식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 접어두고 펼치지 못했던 말들을 솔직하고 간절하게 토로하고 있다. 이 시를 통해 영수함의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절절히 느낄 수 있다. 김여주, 『조선 후기 여성문학 연구 -영수함 서씨의 한시를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제 11집, 한국한문교육학회, 1997 p.185~229에서 시의 해석을 인용하고 감상을 요약 정리함.

96) ㉔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다. 시의 해석은 원주용, 『조선시대 한시읽기(下)』, 한국학술정보(주), 2010에서 인용함.

3) ‘자연관’과 ‘인간관’

以雙竹盆寄容齋 朴闇⁹⁷⁾

我有雙竿碧	내게 두 그루 푸른 대가 있어
聊貽御史家	애오라지 어사 집에 드리노라
託根從淺土	뿌리 내린 곳은 얇은 흙이지만
不語謝春華	말 없는 품이 봄 영화 사양한다
竝立心無附	나란히 서서 빌붙는 마음 없으나
干雲事尙賒	구름을 찌를 일은 외려 원대해라
煩公更扶護	부디 공이 다시금 잘 보살펴서
莫使雪霜加	눈과 서리 맞지 않도록 해 주길

대나무는 매화, 난초, 국화와 함께 사군자의 하나로 선인들에게 사랑을 받은 식물이다. 대나무의 겨울을 견디는 강인함, 견고함, 곧은 마디 등은 흔들리지 않는 지조, 치우치지 않는 공정함, 한결같은 평정심을 가르치는 스승이자 벗이었다.⁹⁸⁾ 이 시에서는 대나무를 빌붙는 마음이 없으며 구름을 찌를 듯 원대한 식물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듯 대나무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 생각 해 볼 수 있다. 이 시는 백거이의 〈養竹記〉 등과 함께 제시할 수도 있다.

3. 時宜性和 時中之道를 갖춘 인성교육

앞서 한문의 글감 중에는 현재의 우리 삶에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문장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문장들은 학습자에게 다소 이해와 공감을 얻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번 절에서는 한문 문장을 비판적이고 현대적으로 감상하면서 인성교육

97) 朴闇은 바른말을 잘하고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시인이지만, 바른말하는 신하를 싫어하는 임금인 연산군의 신하였다. 朴闇은 절친한 벗에게 한 쌍의 대나무를 보내며 ‘상하지 않도록 보살펴 달라’고 부탁했는데 이는 나란히 곧은 모습을 유지하는 대나무의 모습에서 자신과 자신의 친구가 가야 할 길을 찾았던 듯하다. 장유승, 박동욱, 이은주, 김영죽, 이국진, 손유경, 『하루한시』, 샘터, 2015. p89-91 참고.

98) 장유승, 박동욱, 이은주, 김영죽, 이국진, 손유경, 『하루한시』, 샘터, 2015. p89-91 참고.

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1) “한문고전에서는 利를 중요시하지 않았다?”

다음은 한문교과서에서 경서를 통한 인성교육 글감으로 인기가 있는 『맹자』의 문장이다.

(원문) 孟子見梁惠王 王曰 叟不遠千里以來 亦將有以利吾國乎? 孟子對曰 王 何必曰利 亦有仁義而已矣.

(국역) 맹자께서 양혜왕을 뵈시니, 왕이 말씀하였다. “노인께서 천리를 멀리 여기지 않고 오셨으니, 또한 장차 내 나라를 이롭게 함이 있겠습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왕은 하필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또한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이 문장은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어떤 것이 중요한가에 대한 답을 주는 문장으로 ‘리더는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하는가’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양혜왕의 어떻게 해야 나라를 이롭게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맹자는 仁義만이 중요한 것이라고 대답한다. ‘이익’보다는 ‘인의’를 중요시해야한다는 유교사상이 담긴 유명한 문장이지만 지금의 학습자들에게 이 문장을 깊게 감상하고 이해시키기는 힘들다. 당장 뉴스만 틀어 보아도 자신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세고 경제력이 좋은, 즉 부국강병한 나라들의 소식이 매일 전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부국강병’한 나라들과 비교하여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대한 지표가 쏟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학습자들은 맹자가 살던 시대와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맹자의 ‘인의’가 중요하다는 주장은 허무맹랑한 이상주의로 느껴질 수 있다. 교사는 지금의 학습자가 느끼는 생각을 부정하고 맹자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습자의 생각을 존중하고 경서문장을 비판할 점은 비판하며 현대적으로 감상할 필요가 있다.

『孟子』를 비롯한 유교경전에서 利보다는 仁義를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利를 아주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맹자가 살던 시대는 봉건질서가 와해되면서 극도의 무질서 속에 전쟁이 빈발하던 때였다. 또 농사로 자급자족하던 수준의 시

대에서 상품 경제가 발달되는 시대로 옮겨가는 이행기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맹자는 리더는 리에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仁義를 중요시하는 도덕적인 인물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맹자도 『孟子』에서 “民之爲道也 有恒産者 有恒心 無恒産者 無恒心”⁹⁹⁾이라 하여 재물의 중요성을 언급하였고, 사마천 또한 재산을 모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은 「화식열전(貨殖列傳)」을 편찬한 바 있으며, 「역생열전(鬻生列傳)」에서는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民以食爲天.)”고 하여 먹고 사는 문제, 리로 대표되는 돈이나 재물, 경제 또한 중요하게 언급하였다. 교사는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여 보충 자료로 제시하고 맹자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맹자가 리보다는 仁義가 중요하다고 한 것이라는 배경을 충분히 설명해야한다. 그리고 리 또한 중요하게 여길 수 있음을 밝혀 현대의 우리는 맹자의 가치관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리더는 무엇을 중시하는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토론하며 ‘리더십’에 관한 수업을 할 수 있다.

2) “말과 얼굴을 꾸미면 仁하지 못하다?”

“巧言令色 鮮矣仁”이라는 문장은 『論語』의 문장으로 이 또한 교과서에 여러 차례 수록되어 있는 문장이다. 논어에도 세 차례나 등장하는 의미 있고 중요한 문장이기도 하다. 해석하자면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 말만 교묘하고 번지르르하게 하거나, 얼굴빛을 꾸미는 사람 중에는 仁한 사람이 적다’는 뜻이다. 이 문장에 대해 지금의 교과서는 仁하기 위한 방법으로 巧言令色하지 않기를 말하며, 巧言令色을 부정적으로만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巧言令色도 필수 능력이다. 대학을 가거나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단정한 모습을 보여야만 하며,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하여 멋지게 표현해야만 하는 시대이다. 지금의 시대에 巧言令色을 지양해야 한다고 가르친다면 학습자들은 의구심이 들 만하다. 공자는 “巧言令色 鮮矣仁”이라고 하였다. 鮮하다고 하였지 仁한 자가 아예 없다고 하진 않았다. 이에 대한 김용재의 해석을 덧붙이자면 다음과 같다

99)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몇몇한 재산이 있는 자는 몇몇한 마음을 갖고, 몇몇한 재산이 없는 자는 몇몇한 마음이 없다.

‘교언영색’이 모두 죄악이며 잘못된 것은 분명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공자 생존 당시, 교언영색을 하는 자 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어질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인이 사람을 살펴보고 평가할 때 교언영색 하는 사람치고 어진 성품을 가진 자가 ‘드물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春秋傳』에 의하면 “師曠이 諫하기를 잘하자 叔向이 『시경』의 巧言如流(말을 물 흐르듯 잘하다) 구문을 인용하여 그를 칭찬”한 바도 있고, 『시경』 「대아」편에서는 “山甫의 덕을 칭찬하여 令儀令色하다” 하였으니, ‘교언영색’이 때에 따라서는 착하고 온화한 사람을 지칭할 때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鮮矣’라는 말에 주의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鮮矣’(드물다)를 ‘絶無’(절대 없다)라 하지 않았음은 이의 傍證이다.¹⁰⁰⁾

이제는 이 문장도 부정적으로만 해석하여 가르칠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꾸며대기만 하는 자는 仁한자가 적지만, 멋지게 꾸미면서도 仁할 수 있다고 해석할 가능성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3)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再考

우리는 흔히 바람직한 여성의 모습, 엄마의 모습으로 賢母良妻, 夫唱婦隨, 烈女孝婦, 三綱의 덕목인 夫爲婦綱을 들고 있다. 이 성어들은 여성이 사회에서 받는 대우나, 여성에게 기대하는 여성상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문고전을 바탕으로 한 성어로 알고 있는 賢母良妻는 사실 현대에 와서 만들어진 성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다.

19~20세기에 접어들면서 서구로부터 여성의 사회 참여 현상이 부각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현상은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도 유입되었다. 여성을 노동 현장이나 사회의 일터에서 인정해주기 시작하였으나, 전통적인 여성관¹⁰¹⁾을 저버릴 수만은 없었기 때문에 여성을 엮어매는 또 하나의 족쇄로서 표준 ‘어머니 상’과 ‘부인 상’을 지정하게 된 것이다. 이의 대표격이 바로 일본의 ‘마타나 마사나오’는 ‘賢母良妻’라는 단어를 만

100) 김용재, 『논어입문』,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14.

101) 三從之義, 夫唱婦隨, 女必從夫, 男尊女卑등을 예로 들 수 있다. 男尊女卑를 중국에서는 重男輕女라고 표현한다. 이는 한문고전 또는 한자어에 대한 반대급부 현상이 일어나 간체자가 만들어지고 대화체 방식의 백화, 즉 文語體가 아닌 口語體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들어 냈다는 사실이다. ‘현명한 어머니와 어진 아내’라는 현모양처는 근대식 여성들을 옹아매는 또다른 구속이나 다름없다. 이는 전통적 여성상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성별 역할 분담을 강조하는 단어에 불과하다. 남자는 직업을 갖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일 하지만, 여성은 가정 내에서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따라야만 한다는 自嘲的 성 차별 역할을 주입시킨 것이다. 이 성어는 한자문화권 전반으로 퍼지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신사임당을 현모양처의 대표적인 인물로 설정하면서 ‘현모양처’는 못 여성들이 추구해야만 하는 또다른 人間像이 되고 말았다.¹⁰²⁾

한문고전이 쓰였을 당시의 시대상황과 사회구조상 여성을 폄하하거나 차별하는 요소가 포함된 문장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문장이나 한자어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있다. 『논어』의 「위령공」편은 ‘南子’라는 여성을 비판하는 대목들이 나온다. 그러나 이것은 부도덕한 여성을 비판한 것이지, 모든 여성들에 대한 혐오나 상극의 관념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에는 ‘七去之惡’ 혹은 ‘七出’이라는 명목으로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이혼을 강요하였다고 전한다.¹⁰³⁾ 그러나 ‘三不去’제도도 있었음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¹⁰⁴⁾ 우리는 이제는 한문고전 내에서의 ‘女性觀’에 대하여 재음미해보아야 하는 시점에 있다. 비판해야 할 것은 냉철하게 비판하고, 여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항이 있다면 긍정적이고 주체적으로 발굴하여 가르칠 필요가 있어 보인다.

4. ‘漢文’과 他교과의 융합수업을 통한 인성교육 提言

102) 일본에서는 ‘良妻賢母’라고 쓴다. 우리나라에서는 賢母良妻라고 하여 일본과 ‘良妻’와 ‘賢母’의 순서가 되어있다. ‘아내’보다 ‘엄마’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는 賢妻良母라고하여 일본과 유사한데, 아내가 된 후 어머니가 된다는 시간적 선후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103) ‘칠거지악’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말한다. ①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것, ②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③부정한 행위, ④질투, ⑤惡疾(유전병)을 가진 것, ⑥말이 많은 것, ⑦흠치는 것이다. 이 중 ③과 ⑦은 현대사회의 관점에서 봐도 범죄행위에 해당되어 정당하지만, 나머지는 봉건적 가족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요구에서 나온 것으로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납득하기 어렵다.

104) ‘삼불거’는 아내를 함부로 내쫓지 못하게 하고, 혼인 관계가 쉽게 깨어지는 것을 막는 규약이다. ①시부모를 위해 삼년상을 치른 경우, ②혼인 당시 가난하고 천한 지위에 있었으나 후에 부귀를 얻은 경우, ③이혼한 뒤에 돌아갈 만한 친정이 없는 경우는 이혼할 수 없었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추구하는 중학교 교육 변화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지식·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이다.¹⁰⁵⁾ 2016년 이후 자유학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모든 중학교는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희망하는 중학교에 한해 중학교 1학년을 자유학년제로 운영하고 있고, 자유학기 이후에도 한 학기 이상 자유학기의 취지를 살려 학생중심 수업 및 과중중심 평가를 강화하여 자유학기 이후 연계학기까지 시행중이다.¹⁰⁶⁾

자유학기가 시행되자 다중적 접근으로 과감한 통합교과적인 수업과 수행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한문교과는 자유학기제 운영의 초기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았고 선택교과로서 적은 운영시수 등의 원인으로 자유학기 활동 참여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¹⁰⁷⁾

한문은 도구교과의 하나로 현재 학교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융합인재교육에 매우 적합한 교과이다. 한문은 오랜 시간에 걸친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 실제 삶이 반영되어있는 텍스트를 가지고 있다. 그 내용도 문학, 철리산문, 일상의 서술 등 다양하여 타 교과와의 연계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축적된 텍스트는 한문교과의 정체성 그 자체이기도 하다. 이를 바탕으로 타 교과와의 연계를 통한 융합 수업을 한다면 학습자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면서도 한문교과만의 특성을 살린 수업이 가능하다.

이번 절에서는 타 교과와의 연계를 통해 학습자의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체육’교과와의 융합을 통한 ‘소통’, ‘협동’ 덕목의 인성교육 방법

‘체육’과목은 신체활동 가치의 내면화와 실천을 통해 전인교육을 실현하는 교과이

105) 교육부,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 2015.12.24.

106) 교육부, 「중1 자유학년제, 내년부터 희망하는 학교 약 1,500교에서 시작」, 2017.11.03.

107) 노운숙,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한문과 수업연구」, 『한문고전연구』, 한국한문고전학회 35집, 2017, p.345~347

다.108) 체육과에서는 게임이나 스포츠를 직접 수행하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상대와 경쟁·협동하며 문제해결력, 바람직한 대인 관계 방법 등을 학습하게 한다. 다음은 중학교 ‘체육’교과의 내용 체계의 일부이다.

〈표24〉 :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 내용체계¹⁰⁹⁾

영역	핵심개념	일반화된 지식
도전	도전 의미 목표 설정 신체·정신 수련 도전정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은 신체활동을 매개로 자신이나 타인의 기량 및 기록, 환경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도전한다. • 도전의 목표는 다양한 도전 상황에 대한 수행과 반성과정을 통해 성취된다. • 도전 정신은 지속적인 수련과 반성을 통해 길러진다.
경쟁	경쟁 의미 상황 판단 경쟁·협동 수행 대인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은 다양한 유형의 게임 및 스포츠에 참여하여 경쟁 상황과 경쟁 구조를 경험한다. • 경쟁의 목표는 게임과 스포츠 상황에서 숙달된 기능과 상황에 적합한 전략의 활용을 통해 성취된다.

‘도전’영역의 목표를 설정하고 신체·정신을 수련하는 것, 반성을 통한 도전정신, ‘경쟁’ 영역의 경쟁·협동, 대인관계 등의 핵심개념은 漢文科의 인성교육 글감을 분석하면서 발견한 인성덕목인 ‘자기수양’, ‘협동’, ‘소통’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점에서 착안하여 한문 교과서에 제시된 전통 민속놀이를 체육과와 융합하여 수업할 것을 제안한다.

체육교과 수업에서는 심신을 단련한다는 교육목표 하에 운동을 하고 게임을 한다. 그러나 이론적인 학습은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 학습하고 있는 운동이나 게임에 대한 유래와 배경지식을 얻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한문교과 수업에서는 이론에 대해

108) 교육부 고시, 「체육과 교육과정」, 제 2015-74호 [별책 11], p.3

109) 교육부 고시, 「체육과 교육과정」, 제 2015-74호 [별책 11], p.9-10. 본 연구에 의미가 있는 ‘도전’과 ‘경쟁’ 영역만 뽑은 것이며 내용요소와 기능은 생략하였다.

서만 학습하고 실제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실행이 생략된다. 이 때문에 체육교과 시간에서는 구체적인 지식을 얻기가 어렵고, 한문교과 시간에는 이론으로만 배운 ‘협동심’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 평가와 반성 또한 불가하다. 융합수업을 하면 각 교과의 장점을 살려 양쪽 교과에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한문 교과서에는 다음과 같은 전통 민속놀이 관련 글감이 수록되어 있다.

每歲八月望日에 男女共聚歌舞하고 作分左右隊하여 曳大索兩端하여 以決勝負라. 索若中絶하여 兩隊仆地面 則觀者大笑라.¹¹⁰⁾

跳索戲
舊俗에 兒童이 以索으로 執其兩端하고 且越且跳하여 及至千餘度라. 一云 趙重峯先生이 使兒童으로 作此戲하여 健脚力하고 消脚氣云이러라. 名之曰: ‘줄넘기’라.¹¹¹⁾

이외에도 여러 교과서에 명절과 풍속에 하는 전통 민속놀이 소개가 있다. 한문교과는 교실 안에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오는 전통 민속놀이를 직접 수행하기에 제한이 있다. 그러나 체육교과는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몸을 쓰며 체험할 수 있는 과목이다. 인성교육은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을 직접 했을 때 그 효과가 크다고 하겠다. 실제로 도전하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인성 덕목을 체감할 것이다.

먼저 한문교과시간에 전통 놀이와 관련이 있는 본문을 해석하고 감상한다. 이 과정에서 전통 놀이에 대한 기초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을 학습한다.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교과서에는 없지만 <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는 길쌈이나, 차전놀이 등의 전통 놀이도 소개되어 있었는데 이를 보충 자료로 제시하여 여러 전통 놀이를 학습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체육교과시간에는 학습한 전통 놀이를 직접 체험해 본다. 체육 교사의 지도하에 조별로 나누어 진행한다. 전통 놀이를 하면서 소통하지 않고 게임하기, 협동하지 않고 게임하기, 소통을 통해 작전을 짜고 서로 협동하여 게임하기 등 여러 방법으로 놀이를 진행한다. 게임이 끝나고 나서는 승자와 패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에 대해서도 학습 할 수 있다. 승자는 패자를 놀리거나 무시하

110) ㉔교과서 15단원

111) ㉔교과서 19단원

지 않는 등의 ‘배려심’을 갖추어야 하며, 폐자는 결과에 승복하고 인정하며 ‘반성’하여 발전할 수 있다. 실제 행동으로 전통 놀이를 체험하며 ‘소통’, ‘협동’등의 인성 덕목을 체감하였다면, 수업이 끝나고 전통 놀이를 하면서 느꼈던 바를 간단하게 적어본다. 이 때 체감한 인성덕목의 중요성을 떠올리며 내면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업은 기존의 이론에만 치중되었던 한문교과가 실제 행동중심의 체육교과와 결부되면서 한문 문장으로 읽고 느낀 것이 곧 움직임으로 창출되는 선순환을 가져오고 인성이 함양되는 현장학습이 된다.

2) ‘역사’ 교과와의 융합을 통한 ‘義’ 덕목의 인성교육 방법

‘역사’과목은 과거에 있었던 인류의 다양한 삶과 문화를 이해하고 현재의 생활과 앞으로 전망되는 미래 생활을 과거 생활과 연관 지어 살펴봄으로써 인간과 인간의 삶에 대한 폭넓은 이해력과 통찰력을 키우는 과목이다.¹¹²⁾ 역사 과목의 성격의 일부를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표25〉 : 〈2015 개정 교육과정 사회과 교육과정 - 역사 과목〉의 성격¹¹³⁾

역사과목은 역사 사실의 이해, 역사 자료 분석과 해석, 역사 정보 활용 및 의사소통, 역사적 판단력과 문제 해결 능력, 정체성과 상호 존중을 중요한 역량으로 삼고 있다. 여기서 역사 사실 이해는 과거의 사건, 인물, 구조, 변화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중요한 역사 용어나 개념을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역사 자료 분석과 해석은 역사 자료를 읽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역사 지식을 구성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역사과목의 핵심역량에는 ‘역사 사실의 이해’와 ‘역사 자료 분석과 해석’이 있다. 그런데 역사 용어나 개념은 한자 어휘로 이루어진 것이 대다수이고, 우리나라 역사 자료 역시 근대사 이후의 자료를 제외하면 한문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 대부분일 것

112) 교육부 고시, 「사회과 교육과정」, 제 2015-74호 [별책 7], p.96

113) 교육부 고시, 「사회과 교육과정」, 제 2015-74호 [별책 7], p.96

이다. 예를 들어 ‘임진왜란’, ‘갑신정변’ 등은 천간과 지지를 이용하여 연도를 나타낸 것이며, 대다수의 유물 이름은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를 통해 뜻을 설명하면 그것이 어떤 유물인지, 어떤 용도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역사서의 이름 또한 그러하다. 『동국통감(東國通鑑)』의 ‘東國’은 중국이 바라볼 때 우리나라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붙은 우리나라의 별칭이고, ‘鑑’은 거울이라는 뜻으로 역사를 통해 반성하고 반추하라는 의미로 붙은 글자이다. 이러한 배경을 알면 동국통감이라는 책이 어떠한 책인지 힘써 외우지 않아도 기억하기 쉽다. 『三國史記』와 『三國遺事』를 헛갈려 하는 학생이 많은데 이 역시 ‘遺’자에 대한 설명을 통해 쉽게 가르칠 수 있다.¹¹⁴⁾ 아관파천의 ‘아관’은 한자로 표기하면 ‘俄館’인데 이는 당시 러시아 공사관을 가리키던 말인 ‘俄羅斯(아라사) 公使館(공사관)’의 줄임말이다. ‘播遷(파천)’은 ‘임금이 난리를 피해 거처를 옮긴다’는 뜻으로 한자를 알면 그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교과 시간에는 한자어에 대한 충분한 풀이와 이해 없이 곧장 수업에 돌입하게 된다. 역사적 용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수업 내용에 진입장벽이 높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 이러한 학생들은 역사교과의 학업 성취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착안하여 한문과목과 역사과목이 융합한 수업은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역사교과 시간에는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고 역사적 사건이 주는 교훈에 초점을 맞추어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문교과 시간에는 하나의 인물과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각색된 본문을 학습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인 사건에 대한 이해와 그 등장인물에 대한 개성이 수업의 중심이 된다. 두 교과가 갖는 장점이 융합되면 숲도 감상하고 나무도 감상하는 수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문 교과서에는 이순신, 안중근, 세종대왕, 정약용 등 여러 역사적 인물이 등장하고 있다. 역사교과와 한문교과를 융합한다면 다음과 같은 수업이 가능하다. 역사교과에서는 해당 인물이 등장하는 시기의 역사적 사실과 사건들에 대해 학습하며 역사적 배경지식을 쌓는다. 그 다음 한문교과시간에는 각 인물들의 개성을 보여주는 이야기

114) 『三國史記』는 김부식이 왕의 명령을 받아 쓴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의 국가적인 입장이 반영되어 있어 유교적 관점에서 이상한 것들, 즉 신화나 전설 등은 제외되어있다. 『三國遺事』는 일연이 개인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쓴 책이다. 『삼국사기』에 실리지 못하고 ‘남은’ 것들인 풍속·신앙·노래·설화·전설 등에 대한 자료를 실었다. ‘遺’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두 책을 쉽게 구분하고 기억할 수 있다.

를 학습하여 각 캐릭터에 대한 이해를 강화시킨다. 이러한 수업은 인물과 사건을 각 별히 연관시키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한문교과 시간에 역사교과에서 다루지는 개념어에 대한 한자 교육을 병행한다면 학습자의 이해력을 제고 시킬 수 있으며, 사료라는 전거를 바탕으로 학습하면서 공부하는 방법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줄 수 있다.

重根，素未見伊藤，惟嘗於報紙所載之小像，竊識之。乃披軍隊而入，舉槍射之，三丸中胸服，伊藤遂死。又射伊藤從者三人，亦皆仆。於是，重根，大呼大韓萬歲，軍隊就而縛之，重根，大笑曰：“我豈逃者哉？”¹¹⁵⁾

及其最終公判後，謂二弟定根恭根曰：“我死後，埋我骨於哈爾濱公園之傍，待我國權回復，返葬故土也。”(중략) 以庚戌陽曆三月二十六日上午十時，立刑場，欣而言曰：“余，爲大韓獨立而死，爲東洋平和而死，死何憾焉？”遂換韓服，從容就刑。¹¹⁶⁾

위의 글은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 도착한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에게 권총을 쏘고 현장에서 체포되었던 사건을 각색한 글이다. 안중근 의사는 체포당한 후에도 신분을 뚜렷하게 밝혔으며, 러시아 말로 “코리아 우라(대한 만세)!”를 연호했다고 한다.

아래의 글은 최종 공판 후에 두 아우인 정근과 공근에게 남긴 말과 형장에 들어서던 순간을 이야기로 쓴 것이다. 안중근 의사는 죽고 나서도 하얼빈 공원 근처에 묻혀 국권이 회복되는 것을 기다린 후에야 고국에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였으며, 형장에 들어서서도 대한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위해 죽으니 유감이 없다고 말하고 한복으로 갈아입었다. 안중근 의사는 일본 경찰에게 고문과 심문을 받고, 재판을 받았지만 어떤 기세에도 굴하지 않고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이유를 당당히 밝혔다. 이러한 글감을 통해 안중근 의사의 기상과 의연한 모습, 독립에 대한 염원을 느낄 수 있다.

한문교과서에는 안중근 의사가 남긴 유묵에 대한 다음과 같은 보충 자료도 있다.

115) ㉠ 교과서 수록 글감.

116) ㉡ 교과서 수록 글감.

㉞ 교과서 보충자료

바나나출판 안중근 의사의 유묵(遺墨)

1910년 2월 사형 선고를 받은 안중근 의사는 손글씨까지 많은 유묵을 남겼다. 중근체로도 불리는 독특한 서체는 생동감이 넘치고 평화를 갈구하는 뜻이 잘 담겨 있다. 죽음을 앞두고도 한 치 흔들림이 없는 글씨는 학문과 사상이 능숙된 안중근 의사의 자제라 할 수 있다. 유묵 좌측에 '여순옥중(娥順獄中)' 대한국인(大韓國人) 안중근(安重根)'이라고 적고, 단정한 원손으로 장인(掌印)을 찍었다.

▲ 보물 제229-25호 ▲ 안중근 의사 친필 '독립' ▲ 보물 제269-23호

㉟ 교과서 보충자료

바나나출판 육중에서도 범추지 않은 독립의 꿈

이 글은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은 후 찾아온 두 동생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장면이다. 사형 후 자신의 시신을 임시로 하얼빈 공원에 묻어 두었다가 나라의 독립이 이루어지면 그 시신을 조국으로 옮겨 달라는 말을 통하여, 죽음에 임박해서도 나라의 독립을 간절히 바라는 안중근 의사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결국 일본은 안중근 의사의 버림을 들어주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안중근 의사의 시신은 발견되지 못하고 있다.

안중근 의사는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위연한 태도를 지니며 육중 생활을 하였다.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을사늑약을 주도한 이토 히로부미의 일련의 잘못을 계속 꾸짖으며 침략의 부당성을 외쳤다. 더불어 독립에 대한 자신의 마음가짐을 뜻깊게도 표현하여 많은 유묵(遺墨)들을 남겼으며, 저술 활동도 꾸준히 이어 나갔다. 특히, 나라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에 관한 생각들은 "동양평화론"은 비록 사형 집행으로 인해 미완성으로 남아 있지만 독립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자 한 안중근 의사의 노력을 볼 수 있다.

안중근 의사의 유묵

“見利思義 見危授命¹¹⁷⁾”과 같은 문구는 한글 번역으로 읽었을 때는 느낄 수 없는 한문 원문의 맛이 있다. 또한 역사교과에서는 다룰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한문교과에서의 수업을 통해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이해가 심화될 수 있다.

역사교과와 한문교과가 융합되어 수업을 한다면 안중근 의사의 의사가 ‘義士’인지, ‘醫師’인지 한자어 학습을 통한 역사용어 이해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역사교과에서 안중근 의사가 살던 시대적 배경과 독립을 위한 여러 투쟁들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면, 한문교과에서는 안중근 의사 개인에 대해 더욱 집중하여 독립투사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방식으로 독립을 갈망하였는지 깨닫고 안중근 의사의 개인 캐릭터를 통해 독립에 대한 우리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

3) ‘고전과 윤리’ 교과와의 융합을 통한 ‘리더십’ 덕목 인성교육 방법

‘고전과 윤리’는 ‘고전의 원문을 직접 읽고 그 의미를 탐구하는 과정을 통하여 도덕적 실천을 할 수 있는 자세와 태도를 기르기 위한 과목’이다.¹¹⁸⁾ 이 과목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서양의 윤리학 관련 고전들을 기본으로 하는데, 동양의 고전에 한문고전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문교과와 학습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많은 교과이다. ‘고전에 제시된 내용들이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하고 현대 사회의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줄 수 있다’는 ‘고전과 윤리’의 교과 ‘성격’¹¹⁹⁾은 한

117) ㉞교과서 18단원

118) 교육부 고시, 「도덕과 교육과정」, 제 2015-74호 [별책 6] p.65

문과 교육과정의 ‘한문과 인성’ 설명¹²⁰⁾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고전과 윤리’가 내용 요소로 제시하고 있는 동양고전은 『격몽요결』, 『수심결』, 『논어』, 『금강경』, 『목민심서』, 『장자』 등이 있다.¹²¹⁾ 그런데 ‘고전과 윤리’에는 여러 사상가들의 사상이 단편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여러 주장을 비교해보기는 쉽지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예시와 문헌적 근거는 부족하게 수록되어 있다. 한문교과에서는 이에 대해 상세하게 다룰 수 있으므로 ‘고전과 윤리’와 한문교과가 융합한다면 서로를 보충할 수 있는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고전과 윤리 교과서 예시¹²²⁾

더 알아보기 \ 유학에서 성인(聖人)과 군자(君子)

유학에서 성인(聖人)이란 가장 완전한 인격을 가리키는 명사로 보통 사람은 도달하기 어려운 위대한 존재로 상정되고, 군자는 이러한 이상적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존경받았다. 그리고 공자 역시 요, 순과 같은 임금을 성인으로서 추앙하였다. 그러나 정작 『논어』에는 어떻게 성인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진술은 그리 많지 않다. 공자는 성(聖)을 인이 완벽하게 실현된 경지로, 성인을 도덕적·심미적(審美的) 완벽함에 이른 사람으로 보았다.

『논어』가 최고의 이상적 인간상으로 성인을 꼽고는 있지만 실상 『논어』에서 ‘성인(聖人)’이란 단어가 언급된 경우는 겨우 4회에 불과하다. 오히려 군자(君子)라는 단어가 106번 언급되면서 구체적인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들이 지향해야 할 인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논어』에 보면 군자는 인자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자칫하면 어지러워지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는 등 인간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다. 성인과 군자는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군자는 성인과 완전히 동떨어진 인간이 아닌 아직 성인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군자는 성인과 본질상 같으며 자신의 이익만 챙길 줄 아는 소인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인간으로서 유가가 현실 속에서 지향한 인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교과서에서는 ‘인을 실천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논어』의 문장들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인을 실천하는 존재로 聖인과 君子를 소개한다. ‘더 알아보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논어』가 최고의 인간상으로 뽑는 것은 ‘성인’이지만 실제로는 ‘성인’은 4회밖에 언급되지 않고, ‘군자’는 106회 언급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구체적인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들은 ‘군자’를 지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논어』에 나타나고 있는 군자는 ‘인을 실천하는 존재’라고만 정의내리기에 부족한 면이

119) 교육부 고시, 「도덕과 교육과정」, 제 2015-74호 [별책 6] p.65

120) 한문 기록 속에는 현대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예컨대 인간의 존엄성 상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시, 물질 만능주의와 극단적 이기주의의 만연 등에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자료들이 많다. 교육부 고시, 「한문과 교육과정」, 제 2015-74호 [별책 17] p.16

121) 교육부 고시, 「도덕과 교육과정」, 제 2015-74호 [별책 6] p.67-69

122) 박병기, 류지한, 김민재, 김동창, 이철주, 김성기, 『고전과 윤리』, 전라북도 교육청, 2018.

있다. 또한 고전과 윤리 교과서에서는 군자가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찾을 수 없다. 군자가 어떠한 인물인지에 대한 정의만을 학습한다면 이는 반쪽짜리 학습이 될 것이다.

군자상에 대한 정의는 송갑준의 의견을 참고해보기로 한다.¹²³⁾ 군자는 유가가 현실 속에서 지향한 인간상이다. 『논어』에서 직접적으로 군자에 대해 언급한 문장을 살펴보면 현재의 우리는 어떠한 인간이 되어야 할지, 어떠한 자질을 지녀야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논어에 나타난 군자의 모습은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仁의 실천자이다.

富與貴 是人之所欲也，不以其道得之 不處也。貧與賤 是人之所惡也，不以其道得之 不去也。君子去仁 惡乎成名。君子無終食之間去仁，造次必於是，顛沛必於是。¹²⁴⁾

공자는 仁을 떠난 군자는 존재할 수 없음을 위와 같이 서술하였다. 군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正道를 걸어야 하며, 그 정도의 바탕이 바로 인이라는 것이다. 『논어』에서는 “어진 사람은 자신이 서고자 할 때 남도 서게 해주며, 자신이 이루고자 할 때 남도 이루게 해준다. 가까이 자기의 입장에서 취하여 보아 남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인을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¹²⁵⁾고 하였는데 군자는 타인에 대한 배려에서 비롯한 善을 통해 仁을 실천하는 인물이다.

둘째, 보편성과 조화를 지향하는 지도자이다. 『논어』에는 “君子不器”라는 문장이 있다. 군자는 일정한 용도에만 쓰이는 그릇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군자는 특수성을 넘어 仁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다.

子曰 君子之於天下也 無適也 無莫也 義之與比。¹²⁶⁾

123) 송갑준, 「『논어』의 군자상과 그 현대적 의미」, 『대동철학』 32권, 대동철학회, 2005.

124) 『논어』, 「里仁」 5, 부유함과 높은 지위는 누구나 원하는 것이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누리지 않는다. 가난과 비천함은 누구나 싫어하는 것이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벗어나지 못한다면 거기서 떠나지 않는다. 군자가 인을 버리면 어디에서 그 이름을 이루겠는가? 군자는 밥 먹는 동안에도 인을 떠나지 않으며, 아무리 황급한 때에도 여기에 있으며,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반드시 여기에 있다.

125) 『논어』, 「雍也」 28, 夫仁者 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 能近取譬 可謂仁之方也已.

質勝文則野, 文勝質則史. 文質彬彬 然後君子.¹²⁷⁾

‘質’이 소박하고 거칠, 꾸밈없는 마음의 본성이라면, ‘文’은 예약으로 문식한 문화적 세련미이다. 이러한 문과 질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만 군자의 완성된 인격이 형성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군자는 정의를 표준으로 하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질박하고 선한 인간미를 바탕으로 문화일반에 대한 세련된 소양을 갖춘 인격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언행일치 인격의 소유자이다. “子曰 君子訥於言而敏於行.”¹²⁸⁾는 문장이나 “子曰 君子恥其言而過其行.”¹²⁹⁾ 이라는 문장을 통해 알 수 있다. 말하기는 쉽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책임지는 일은 어렵다. 『논어』에서는 군자를 언행에 신중을 가하는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군자는 仁을 실천하고, 보편성과 조화를 추구하며, 언행일치의 인격을 가진 인물을 상징한다. 그런데 군자는 현대적 의미로 해석해보면 지도자, 즉 ‘리더’라고 표현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논어』를 통해 제시된 군자의 모습을 통해 ‘리더가 갖추어야할 자질’, ‘리더십’의 덕목까지도 학습할 수 있다. 『논어』의 문장을 통해 선인들이 지향하였던 인간상을 살펴본 다음, 현대의 우리가 본받아 지향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고, 리더가 갖추어야할 자질을 토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26) 『논어』, 「里仁」10, 군자는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만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도 없고, 만드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없다. 오직 의를 따를 뿐이다.

127) 『논어』, 「雍也」16, 질(質)이 문(文)보다 지나치면 세련되지 못하고, 문이 질보다 지나치면 문약에 흐르게 된다. 문과 질이 섞여서 조화를 이룬 뒤에야 군자라 할 수 있다.

128) 『논어』, 「里仁」24, 군자는 말을 신중히 하고 행동은 민첩하게 하려고 한다.

129) 『논어』, 「憲問」29, 군자는 말이 앞서고 행동이 따르지 못함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V. 결론

본 논문은 한문교과시간을 활용하여 효율적이며 가치 있는 인성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현재의 한문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인성교육 글감을 분석하여 여러 문제점을 진단하고, 새로운 인성덕목을 창출하며 이에 따른 교수·학습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인성역량은 새로운 사회에서 요구하는 필수 역량이다. 이에 따라 인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인성교육은 흔히 ‘문제야’를 선도하는데 필요한 교육으로 쓰이거나, 보여주기 식 전시교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흔했다. 이러한 현실을 토대로 교육부에서는 실효성 있는 인성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인성교육법〉을 제정하였다. 교육부의 의도대로 교육과정도 변화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슬로건은 ‘창의·인성 교육’으로 설정되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은 새 교육과정이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중점을 둔다고 밝혔다. 이에 그간 ‘道徳科’의 전유물이었던 인성교육을 각 교과마다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보강되었다. 특히 漢文科는 ‘인성역량’을 漢文科에서 기를 수 있는 중요한 역량으로 설정하면서 인성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漢文科 교육과정은 인성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체계를 담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한문교과에서의 인성교육과 그 교수법을 고찰해 볼 필요성을 느꼈다.

Ⅱ장에서는 교육부와 교육학계, 인성교육의 중추 과목인 道徳科 교육과정, 漢文科 교육과정을 살펴 인성교육의 정의를 찾아내고, 현재의 인성교육이 담고 있는 인성덕목과 그 내용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첫째, 교육부가 발표한 인성교육 관련 정책에서의 인성교육 정의와 핵심 덕목을 추출하였다. 그 다음으로 교육학계에서 제시하는 인성교육의 정의와 인성덕목도 찾아내었다. 둘째, 도덕과의 〈2009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과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을 비교하여 道徳科에서의 인성교육 현황을 알아보았다. 셋째, 漢文科의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과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을 살펴 인성교육 요소를

어떻게 담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漢文科 인성교육은 그 내용이 점차 강화되었지만, 교육학계와 道德科와 비교해본다면 ①학교 교육에 교육과정 내용을 바로 적용하기에는 인성덕목이 구체적이지 못하며, ②인성교육 내용이 시대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③비판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발표한 정책이 제시하고 있는 인성덕목과, 道德科가 제시하는 인성덕목에 대한 기초적인 글감은 漢文科가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漢文科가 인성교육을 담당하기에 충분하다는 사실도 발견하였다.

Ⅲ장에서는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집필된 중학교 교과서 17종, 고등학교 교과서 14종을 분석하였다. 교과서는 학교수업의 기본 교재이기 때문에 인성교육이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이다.

교과서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인성덕목에 관한 영역별 및 빈도수를 분석하였다. i) 한문교과서 글감을 통해 설정할 수 있는 인성덕목을 찾아보았다. 교과서 글감이 제시하는 인성덕목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분석하였는데, 교육부 정책이나 道德科 교육과정과 공통되는 덕목도 있었으며, 한문교과만이 제시하는 漢文科의 개성이 드러나는 덕목도 있었다. 중등학교 교과서에서 인기 있는 인성덕목은 ‘자기수양’, ‘배려’, ‘소통’ 등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 이슈인 환경관이나, 생명관, 평등관 등의 글감을 실리지 않았다. ii) 교과서 분석결과 동일한 글감이 자주 사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같은 층위의 교과서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글감이 그대로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린 경우는 중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고등학교에서도 반복학습하게 되므로 학습자는 다양한 덕목과 글감을 학습할 기회를 빼앗기고, 지루함을 느낄 것이다.

둘째, 인성교육 글감을 학습 장르별로 구별하였다. 한문교과서에서 인성교육에 관한 글감은 단문이나, 산문, 경서에 치중되어 있고 한자나, 단어 파트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또한 한시 파트에서도 인성교육에 관한 글감이 부족하였다. 인성은 단기간에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체득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과서 분석 결과 교과서의 전반부를 차지하고 있는 한자나, 단어파트에서는 인성 관련 글감이 부족하였고 후반부를 차지하는 단문, 산문, 경서 파트에 분량이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교과서로 수업을 한다면 1년 동안 진행되는 한문 수업에서 1학기 후반 혹은 2학기에만 인성 관련 글감에 노출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자나 성어, 한시 파트에서도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히 제안하였다.

셋째, 본문 글감과 학습활동이 제대로 연계가 되었는지 살펴보고, 학습활동이 가지는 한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여기에는 i) 학습목표에 따른 인성덕목의 서술 양상도 포함된다. 교과서와 단원에 따라 ‘인성관련 학습목표가 교육과정 내용을 본떠 구성된 경우’가 있었고, ‘해당 단원에서 다루고자 하는 인성덕목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있었다. 교육과정의 내용을 본떠 만든 학습목표는 학습자에게 어떠한 인성덕목을 배우게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지만, 스스로 학습 덕목을 찾는 과정을 통하여 능동적인 학습을 이끌어낸다. 인성덕목을 포함하여 만들어진 학습목표는 제시된 인성덕목 외의 인성덕목을 발견하기 힘들게 하지만, 수업내용을 예측하여 준비할 수 있고 학습자에게 어떠한 학습을 하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ii) 학습활동이 인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학습목표를 충분히 실현시켜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학습활동은 주어진 학습목표에 따라 이해한 본문의 감상을 심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인성과 관련이 없이 지식교육에 치우쳐진 학습활동을 제시하는 경우를 찾을 수 있었다. iii) 비판적인 감상을 제공하는 학습활동이 부족하였다. 앞으로의 인성교육은 그간의 이론적이며 실천적이지 못한 인성교육으로부터 탈피하여 학생들이 직접 실천, 반성하며,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학습활동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비판적인 학습활동의 예시를 들어 미래지향적인 인성교육을 할 수 있게 제안하였다. iv) 교과서 내에서 인성역량에 관한 글감이 실제로는 부족할 수 있음을 찾아내었다. 한문교과서는 매 소단원 끝에 보충 읽기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성역량’을 기를 수 있는 자료라고 표시하고서 인성역량과는 동떨어져 있는 자료를 실은 경우를 발견하였다. 교과서는 핵심역량을 골고루 반영하여야하지만 실제로는 인성역량 관련 글감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넷째, 漢文科에서 다룰 수 있는 새로운 인성덕목을 창출해내었다. 앞선 분석을 통해 漢文科 교육과정은 인성교육에 관한 내용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또한 한문교과에서는 당위적이며, 시의성에 맞지 않는 인성덕목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변화하는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漢文科의

정체성을 살리면서도 미래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인성덕목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인성교육 내용체계를 창출해내었다. 내용체계의 설정은 그동안 연구되어지지 않은 부분으로 앞으로 漢文科의 인성교육에 어느 정도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새롭게 제시한 인성덕목은 ‘평등’, ‘환경보전’, ‘생명존중’, ‘자연관-인간관’ 등이다. 이들은 漢文科에서 인성덕목으로 다루이지 않고 심도 있게 논의되어 왔던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이면서 꼭 필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학습자가 흥미를 가지고 인성교육에 참여 할 수 있을 것이다

IV장에서는 漢文科에서의 인성교육을 위한 교수법을 개발하였다.

첫째, ‘字’의 음·훈·형태소를 활용하여 ‘평등’ 덕목을 학습할 수 있는 교수법을 개발하였다. 앞서 한자를 활용한 인성교육은 글감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한자를 통한 인성 교수법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하였다. <중·고등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에서 ‘女’가 포함되는 글자는 좋은 뜻을 나타내는 글자보다 나쁜 뜻을 나타내는 글자가 훨씬 많다. ‘安’과 ‘字’를 비교해 봐도 그러하다. 이에 한자가 성차별적 요소를 가지고 만들어졌음을 이해하고 차별적 요소를 제거한 ‘새로운 한자 만들기’수업을 제안하였다. 학생들이 성역할 고정관념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느낀다면 ‘평등’의 덕목에 공감하고 실제 삶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시 감상을 통한 ‘修己’, ‘가족애’, ‘자연관-인간관’ 덕목의 인성교육 보충 자료를 개발하였다. 한시는 무궁한 주제와 제재를 가지고 있으며 독자의 마음을 순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교육의 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한시는 한시만이 가진 장르적 특성이 있고, 한시에서까지 인성교육을 하고자 하면 학습량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에 한시를 보충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한문교과에서 다루고 있는 인성덕목의 학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만한 시들을 소개하여 보충자료로 제시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시의성을 갖춘 인성교육을 위해 문장의 비판적 감상 방법을 제안하였다. 한문 글감을 비판적이고 현대적으로 감상하면서 바람직한 인성을 배양할 수 있는 방안으로 i) 한문 경전에서 仁義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利의 중요성도 알기, ii) 巧言令色을 긍정적으로 평가해보기, iii)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기 등

을 제시하였다. 그간의 한문 문장을 이해하기 힘들고 공감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느끼게 하는 대신, 학습자들이 문장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해하면서 자신의 사고 과정을 조절할 수 있게 하였다.

넷째, 他교과와의 융합을 시도하였다. i) 체육교과와의 융합을 통해 ‘소통’과 ‘협동’의 덕목을 학습하는 인성교육 방법을 제안하였다. 체육교과는 상대적으로 이론적인 학습이 부족하고, 한문교과는 몸으로 실천하는 행동학습에 약하다. 그러나 두 교과를 융합한다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문교과 시간에 전통 놀이에 대해 학습하고 체육교과 시간에 직접 전통놀이를 체험해 본다면, 이론에만 치중되었던 한문교과가 실천적인 체육교과와 결부되면서 한문 문장으로 읽은 것이 움직임으로 창출되는 선순환을 가져오고 인성이 함양되는 현장학습이 될 수 있다. ii) 역사교과와의 융합을 통해 ‘義’ 덕목을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역사교과의 중요한 용어나 개념은 한자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역사 사료 또한 한문 문장으로 되어 있다. 역사교과는 역사라는 큰 맥락 안에서 사건과 인물을 다루는데 반해, 한문교과는 하나의 사건과 인물에 집중하여 만들어진 본문을 학습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교과와 한문교과가 융합된 수업을 한다면 여러 프레임을 통해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학습하고 이해의 심화를 기대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안중근 의사와 관련한 글감을 바탕으로 ‘義’를 학습할 수 있게 하였다.

iii) 고전과 윤리 과목과 융합하여 ‘리더십’ 덕목을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고전과 윤리 과목은 동·서양의 고전을 바탕으로 자신을 성찰하게 하고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는 과목이다. 그런데 동양의 고전들은 한문으로 쓰인 책들이 대부분이므로 한문교과와 융합한다면 문헌적 근거를 사례로 제시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군자는 어떤 자질을 갖춘 인물인가에 대한 『논어』문장을 찾아 ‘리더십’ 덕목을 학습할 수 있게 하였다.

한문고전은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이 담겨있는 寶庫이다. 한문교과는 한문고전을 바탕으로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시켜주는 교과이다. 그러나 한문고전을 바탕으로 하는 한문교과 인성교육은 학습자들의 인성을 함양시켜주기에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본고에서 새롭게 제시한 인성덕목과 교수·학습법을 통해 한문교과의 인

성교육이 미래 사회의 인재를 키워주며, 실천적이고 환영받는 인성교육으로 발전하기를 소망한다.

참고문헌

□ 교육부 보도자료 및 연구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2 인성교육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2. 9.3
- 교육과학기술부, 「-인성 및 공공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 2011
- 교육부, 「중1 자유학년제, 내년부터 희망하는 학교 약 1,500교에서 시작」, 2017.11.03.
- 교육부,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 2015.12.24.
- 교육부,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2006-2020)」, 2016. 1. 19
- 교육부, 「인성교육진흥법」, 법률 제13004호, 2015년 1월 20일 제정, 2015. 7. 21. 시행
- 문용린, 「이제는 창의·인성 교육이다」, 한국과학창의재단 칼럼, 2010.
- 미국교육부, 「Partnerships in character education -state pilot projects 1995-2001-」, 『lesson learned』, 2008
- 서지영, 남명호, 김소영, 이원석, 최미숙, 홍수진,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위한 수행평가 활성화 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2012
- 조난심 외, 「인성평가 척도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서』, 2003
- 천세영, 김왕준, 성기욱, 정일화, 김수화, 「인성교육 비전 수립 및 실천 방안 연구」, 인성교육 비전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2012-14, 교육과학기술부, 2012
- 현주 외, 「초·중등 학생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I):인성교육 진단 및 발전과제 탐색」 연구보고 RR2013-01, 한국교육개발원, 2013
- 현주, 장명림, 정광희, 한미영, 류덕엽, 「초중등 학생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II) : 초등학교원 인성교육 연수 자료 개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14-02, 2014
- 현주, 최상근, 차성현, 류덕엽, 이혜경, 「학교 인성교육실태 분석 연구 : 중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 보고 RR 2009-09』, 2009

□ 교육과정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도덕과 교육과정」, 제 2011-361호 [별책 6].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한문과 교육과정」, 제 2011-361호 [별책 17].
- 교육부 고시, 「도덕과 교육과정」, 제 2015-74호 [별책 6]
- 교육부 고시, 「사회과 교육과정」, 제 2015-74호 [별책 7]
- 교육부 고시, 「체육과 교육과정」, 제 2015-74호 [별책 11]
- 교육부 고시, 「한문과 교육과정」, 제 2015-74호 [별책 17]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제작된 중·고등학교 교과서

- 김성중 외, 『중학교 한문 교과서』, 이젠 미디어, 2018
- 김영진 외, 『중학교 한문 교과서』, 씨마스, 2018
- 김용재 외, 『중학교 한문 교과서』, 와이비엠, 2018
- 박성규 외, 『중학교 한문 교과서』, 동아출판, 2018
- 송재소 외, 『중학교 한문 교과서』, 다락원, 2018
- 심경호 외, 『중학교 한문 교과서』, 미래엔, 2018
- 안대회 외, 『중학교 한문 교과서』, 천재교과서, 2018
- 안재철 외, 『중학교 한문 교과서』, 지학사, 2018
- 오형민 외, 『중학교 한문 교과서』, 금성출판사, 2018
- 이동재 외, 『중학교 한문 교과서』, 비상교육, 2018
- 이병순 외, 『중학교 한문 교과서』, 한국학력평가원, 2018
- 이병주 외, 『중학교 한문 교과서』, 대학서림, 2018
- 이상진 외, 『중학교 한문 교과서』, 동화사, 2018
- 이향배 외, 『중학교 한문 교과서』, 대명사, 2018
- 이현교 외, 『중학교 한문 교과서』, 중앙교육, 2018
- 임완혁 외, 『중학교 한문 교과서』, 교학사, 2018
- 진재교 외, 『중학교 한문 교과서』, 장원교육, 2018
- 오형민 외,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금성출판사, 2018.
- 송재소 외,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다락원, 2018.
- 이향배 외,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대명사, 2018.
- 신표섭 외,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대학서림, 2018.
- 박성규 외,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동아출판, 2018.
- 심경호 외,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미래엔, 2018.
- 이동재 외,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비상교육, 2018.
- 김영진 외,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씨마스, 2018.
- 김용재 외,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와이비엠, 2018.
- 김성중 외,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이젠미디어, 2018.
- 진재교 외,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장원교육, 2018.
- 안재철 외,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지학사, 2018.
- 안대회 외,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천재교과서, 2018.
- 안대회 외, 『고등학교 한문 II 교과서』, 천재교과서, 2018.
- 박병기 외, 『고전과 윤리』, 전라북도 교육청, 2018

□ 단행본

- 기획집단 MOIM , 『고사성어랑 일촌맺기』, 서해문집, 2010
- 김대호, 『4차 산업혁명』, 커뮤니케이션 북스, 2016
- 김용재, 『논어입문』,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14
- 남궁달화, 『인성교육론』, 문음사, 1999
- 이윤옥, 『유아를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창지사, 1998
- 장유승, 박동욱, 이은주, 김영죽, 이국진, 손유경, 『하루한시』, 쌤터, 2015
- 전관수, 『한시작가작품사전』, 국학자료원, 2007
- 정민, 박수밀, 박동욱, 강민경, 『살아있는 한자 교과서』, 휴머니스트, 2004
- 정춘수, 『한자 오디세이』, 부키, 2003
- 하영삼, 『연상한자』, 예담, 2004
- 한국교육학회, 『인성교육』, 문음사, 1998
- 황응연, 『심리학과 생활』, 배양사, 1992

□ 학위 논문

- 김유나, 「국어과 중학교 인성교육 교재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박진, 「『논어』를 통한 인성교육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석사논문, 2016
- 김은정, 「한문과를 적용한 인성교육 방안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8
- 조지선, 「양명철학에 있어 인성교육의 함의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 연구논문

- 고재석, 「대학인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 동아시아 고전 『논어』를 통한 인성교육 모델 제언-」, 『儒學研究』 39집, 충남대유학연구소, 2018
- 김여주, 「조선후기 여성문학 연구 -영수합 서씨의 한시를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제 11집, 한국한문교육학회, 1997
- 김영래 외 「인성교육을 위한 핵심가치 덕목과 핵심역량의 연구모형에 관한 고찰」, 『교육의 이론과 실천』 20권 2호, 한국교육학회, 2005
- 김용재·김우정 외, 「한문 학습용 사전 수록 어휘의 선정과 체례」, 『한문교육연구』, 2014
- 김용재, 「중고교 한문교육에서의 경서교육에 관한 발전적 제언」, 『한문고전연구』 제27집, 2013
- 김은경, 「‘한문과 인성’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사례」, 『한문교육연구』, 제46집, 한국학문

교육학회, 2016

- 노운숙,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한문과 수업연구」, 『한문고전연구』, 제 35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17
- 류준경,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특징과 의미」, 『교육연구』 65집, 2016
- 문성화, 홍순희, 송현주, 「『논어』를 활용한 인성교육의 교수·학습방안과 자기 효능감 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 37집,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17
- 박성미, 허승희, 「청소년용 통합적 인성 척도 개발」, 『아동교육』, 아동교육학회, 2012
- 송갑준, 「『논어』의 군자상과 그 현대적 의미」, 『대동철학』제 32권, 대동철학회, 2005.
- 신현석·김상철, 「인성과 교육의 관계적 의미 고찰-‘문질빈빈’인성 고찰을 통한 교육인류학적 함의 탐색」, 『한국교육학연구』 23권, 2017
- 안세현, 「한문교육에서의 인성교육」, 『한문교육연구』, 한국한문교육학회 제 49집, 2017
- 안순태, 「대학 교양한문 교육과 인성교육 -논어(論語) 세미나 수업 모형을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제 48집, 한국한문교육학회, 2017
- 안영석, 「인성교육의 관점으로 본 『윤리와 사상』 교육과정」, 2018년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동계학술대회 발표집
- 오예승, 「한문과 창의·인성 교수·학습 사례」, 『한문교육연구』 45집, 한국한문교육학회, 2015
- 이근철, 「초등학교 도덕·인성 교육의 발전방향」, 경인초등교육학회, 1996
- 최경준, 「인성교육 콘텐츠로서의 천자문」, 『문화와 융합』 39집, 한국문화융합학회, 2017
- 賀友齡, 「漢字 形體에 반영된 여성의 사회지위의 浮沈」, 『한자한문교육』, 14집, 2005

□ 인터넷 기사

- Thomas L. Friedman, 「How to Get a Job at Google」, The New York Times, 2014.02.22. (https://www.nytimes.com/2014/02/23/opinion/sunday/friedman-how-to-get-a-job-at-google.html?_r=0)
- 박광수, 「‘페미니즘 교육의무화’ 청원에 靑 “통합 인권교육 토대 마련”」, 중앙일보, 2018.02.27. 입력. (<http://news.joins.com/article/22400262>)
- 윤석만, 「4차 혁명시대, 인성이 최고 실력이다」, 경향신문, 2017.11.10.등록. (<http://news.joins.com/article/22105061>)
- 하상윤기자, 「‘겨울 축제’가 할퀴고 간 상처...‘운무’라도 보듬고 싶었나보다」, 세계일보, 2018.05.06. (<http://www.segye.com/newsView/20180503005264>)

Abstract

Developing Personality Virtue and Teaching-Learning methods in Secondary Chinese Classics Education Course - According to 2015 Revised Chinese Classics Curriculum -

Kim JiYeong

Department of Chinese Classics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Personality was mentioned as a key ability needed in the future society. Therefore, the demand for personality education in secondary school has increased. Chinese classics is one of the major subject in charge of personality education, but the curriculum is not specific and students feel that it is outdat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developing personality virtues and proposing teaching-learning methods in secondary chinese classics education course.

In chapter II, I found the definition of personality education by comparing policie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discussions of educational circles, analyzed personality education contents in Moral education curriculum and Chinese classics education curriculum. This led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Chinese classics curriculum have insufficient contents, is outdated, does not provide critical perspective.

In chapter III, I compared and analyzed secondary school textbook : 17 types of middle school chinese classics textbook, 14 types of high school chinese classics textbook. i) I found out what personality virtues are being taught,

which genre is being taught. There were virtues both taught in Moral classes and Chinese classics classes: 'Li(禮)', 'Xiao(孝)', 'Honesty', 'Responsibility', 'Respect', 'Consideration', 'Communicate', 'Cooperation'. And there were virtues that taught only in Chinese classics classes: 'Self-discipline', 'Oblige', 'Leadership', 'Ren(仁)', 'Yi(義)', 'Friendship', 'Kindness', 'Thrift', 'Integrity', 'Family affection', 'Equality', 'View of nature', 'Modesty'. ii) Chinese classics textbook consists of seven genres. They are Chinese character, word, idiom, simple sentence, prose, poetry, the Confucian classics. Personality education is mostly done in simple sentence, prose or the Confucian classics section. But it is not done in Chinese character section. This means that personality education is only conducted at the end of the term. Personality education should be taught in every genre, every section and should be conducted slowly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at way, students can fully learn and practice personality virtues. iii) I examined whether the text is related to learning activity. The achievement goal of Chinese classics textbook is to have two descriptive styles. One is based on the content of the Chinese classics education curriculum, and the other is us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unit, the corresponding personality virtues were included. While most of the learning activities were related to the text, some were too simple and not practical, have no critical appreciation. iii) To compensate for the above analysis, I set up a personality education content system and suggest new personality virtues. New personality virtues for Chinese classics education is 'Equality', 'Environmental conservation', 'Life respect', 'View of nature and View of human being'.

In chapter IV, various teaching methods were proposed for personality education. i) I developed a method of teaching that can teach 'Equality' virtue. Chinese characters are written after they became male-oriented society. So it reflects male superiority and a sense of disrespect for women. Students can learn equality by finding male superior ideas in Chinese characters and refusing to use them. ii) I developed supplementary text for learn 'Self-discipline', 'family

affection', 'view of nature and view of human being' through poetry appreciation. Personality education in various genres will help students develop personality. iii) Personality education method was proposed to satisfy the needs of present society. I provide examples that can appreciate Chinese classics more practical and critically. iv) I tried to integrate classes with other subjects. First, I suggested the method of personality education combining Chinese classics classes with 'Physical Education' classes for the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virtues. Secondly, combine with 'History' classes, a method of personality education of the 'Yi(義)' virtues was proposed. Lastly, I found a way to teach the virtue of 'leadership' through integration with the 'Classics and Ethics' classes.

Chinese classics contain the wisdom and thought of the ancestors. Chinese classics class is based on the Chinese classics, and build healthy values and desirable personalities. However, Chinese classics education based on Chinese classics is not enough to foster the personality of learners. Through the newly proposed personality virtues and teaching methods, I hope that the personality education in Chinese classics will nurture future talent.